

# 郷土史料

第四輯

社団法人 鳥致院文化院



# 郷土史料

## 第四輯

### 目 次

發刊辭	1
○ 무인명불상 부대좌(戊寅銘佛像 附台座)	
칠존석불상(七尊石佛像)	3
○ 비암사 극락보전(碑岩寺 極樂寶殿)	7
○ 봉산 향나무(鳳山香나무)	9
○ 연기향교(燕岐鄉校)	11
○ 전의향교(全義鄉校)	12
○ 문절사(文節祠)	13
○ 합호서원(合湖書院)	15
○ 대곡리 사층석탑(四層石塔)	17
○ 송용리 마애불(松龍里 磨崖佛)	18
○ 옛 성터	19
○ 독락정(獨樂亭)	40
○ 어서각(御書閣)	42
○ 병산사(屏山祠)	45
○ 봉산영당(鳳山影堂)	47
○ 승덕사(崇德祠)	49
○ 자교암(慈教岩)	52
○ 금강대도(金剛大道)	54

○ 오충신(五忠臣).....	57
○ 충절의 선비 김승로(金承露).....	53
○ 사육신 박팽년(朴彭年).....	67
○ 생육신 성담수(成聘壽).....	70
○ 충신 홍직(洪植).....	73
○ 학당골 김 휴(金 休).....	75
○ 한말 거사 진시책(陳時築).....	77
○ 충신 김제정(金濟鼎).....	79
○ 항일투사 성기운(成璣運).....	80
○ 애국지사 오강표(吳剛杓).....	82
○ 한말의 청백리 류인철(柳寅哲).....	87
○ 홍보(洪寶) 신도비.....	90
○ 조계원(趙啓遠) 신도비.....	93
○ 이경억(李慶憶).....	95
○ 이유태(李惟泰).....	97
○ 김경여(金慶餘).....	99
○ 한충(韓忠)선생의 묘.....	101
○ 효자 최 회(崔 澹).....	103
○ 열부 전주이씨(全州李氏).....	105
○ 효자 이봉환(李鳳煥).....	107
○ 효열부 언양 김씨(彦陽金氏).....	109
○ 양세 열녀 손씨와 성씨(孫氏,成氏).....	112
○ 열녀 광산 김씨(光山 金氏).....	114
○ 효자 임양문(林養文).....	116
○ 효자 김백열(金白悅).....	118
○ 효자 채관형(蔡觀亨).....	120
○ 5세 7효 홍연경외(洪延慶).....	122
○ 효자 김종철(金鍾喆).....	125

○ 효자 성이복(成而復)	128
○ 효자 김한정(金漢鼎)	130
○ 효부 부안임씨(扶安林氏)	132
○ 효자 김 연(金 連)	134
○ 열녀 경주 최씨(慶州崔氏)	136
○ 열녀 의성김씨(義城金氏)	138
○ 효자 임명즙(林命楫)	141
○ 3효자 이정환(李廷煥)과 두 손자	144
○ 효자 임수준(林秀俊)	147
○ 형제효자 임자의(林自儀)와 임태선(林 太先)	149
○ 쌍 열녀 창녕성씨(昌寧成氏)와 결성장씨 (結成張氏)	151
○ 효자 강 협(康 協)	152
○ 열부 김해김씨(金海金氏)	154
○ 효자 조백달 (趙百達)과 열부 경주김씨 (慶州金氏)	157
○ 조수빈(趙秀彬) 명빈(命彬)형제	159
○ 효자 김충렬, 신렬 형제	162
○ 효자 김사준(金師俊)	164
○ 영당리 정려	167
○ 열부 기계유씨(杞溪俞氏)	169
○ 효열부 공인라씨(恭人羅氏)	171
○ 효자 김익정(金益精)	172



## 發 刊 辭

郷土史料 4輯을 發刊하며 生覺건대 끝없는 歷史의 흐름속에 우리 周圍에서 사라져가는 선조들이 남긴 文化遺産을 發掘 保存함이 우리가 해야할 命題라 하겠습니다.

文化란 우리의 過去와 現在와 未來를 連結시키면서 한 國家社會를 水準높게 向上시켜주는 主體이며 巨大한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傳統文化의 모습을 찾아 우리 歷史의 過去를 알고 現實을 把握하여 未來를 슬기롭게 對處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고장세 傳承되는 固有文化를 再照明하여 갈고 다듬어 나가면서 그속에 담긴 祖上들의 智慧와 슬기로움을 記錄으로 담아 後孫에 물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987년 12월 일

鳥致院文化院長 李 基 鳳



## 무인명불상 부대좌(戊寅銘佛像 附台座)

### 칠존석불상(七尊石佛像)



문화재지정 : 보물 제 649호, 보물 제 650호

위 치 : 연기군 서면 월하리 (연화사)

백제의 불상과 관련하여 먼저 비상(碑像)을 설명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1958년부터 약 3년동안 충청남도 연기 비암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발견된 7개의 납석재 불상을 말함이다.

7개 불상중 4개에는 명문(銘文)이 있어서 연대와 불상의 이름과 관계 인명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명문에 따르면

백제가 멸망한 직후인 7세기 후반에 그 옛땅에서 백제의 유민(遺民)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것은 아미타불 3존상과 반가상을 주존으로 삼고 있는 사실에서 당시 믿음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아미타불과 미륵보살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 하겠는데 후자를 반가사유상으로 표현한 것은 백제에서 유행한 양식을 고찰함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들 7개불상 중 비암사의 3불상과 다른 하나가 근래에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옮겨진 것은 그 보호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

다음에 그들 4개석의 명칭과 연대등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계유명 전씨 아미타불 3존석상 (癸酉銘 全氏 阿彌陀佛 三尊石像 國寶 第 106號)은 높이 43 cm로 4면에 모두 불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전면을 주로하여 아미타 3존과 광배(光背)를 세각하고 있다.

그 밑에 명문이 있는데 계유년 673년(신라 문무왕 13)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양 측면에는 주악(奏樂)하는 천인상을, 후면에는 이 비상을 조성한 풍속 인명과 함께 작은 좌상이 상하로 나열되어 있다.

이 비상은 원래 상하에 옥개(屋蓋)와 대석(臺石)이 따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모두 없어졌다.

기축명 아미타불 제불 보살석상(己丑銘 阿彌陀佛 諸佛 菩薩石像, 寶物 第367號)은 높이가 57.5cm이다.

이 비상은 전면에만 조각이 있으며 후면에는 명문 4행이 판독되었다.

조각은 아미타 여래를 중심에 두고 좌우에 여러 보살을 배치 하

였으며 상면에는 보리수에 영락(瓔珞)이 장식되어 있으며 다시 밑으로는 연못과 계단등이 조각되어 있어서 마치 극락세계를 표현한 것과 같다.

그리고 기축년은 계유년 보다 늦은 689년 (신라 신문황9) 으로 추정된다.

미륵반가 사유석상(彌勒半跏 四維石像 寶物 第 368號)은 높이가 41cm이다. 비암사 3불상 중 가장 작는데 대좌에 옥개형이 불신과 함께 모두 1석을 이루고 있다.

정면에는 반가사유 보살상 1구를 정면으로 배치하였으며 양 측면에는 각기 1구의 보살입상을 정면을 향하여 배치 하였다. 또한 후면에는 1좌의 보탑(寶塔)을 조각 하였는데 이것은 반가 보살상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미륵보살을 추정하는 정표가 되기도 한다.

이곳에는 명문이 없고 조각의 솜씨나 그 형태에서 계유명 아미타 석상과 같은 연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이들 아미타미륵 2석상이 그 당시의 믿음에 따라서 동시에 시납된 것으로 보인다. 비암사는 충남 연기군 전동면 다방골에 있고, 삼한고찰(三韓古刹)이라고 전하는데 이같은 비상 3개 석이 천 수백년 동안이나 보호되어 온 것은 기적이기도 하다.

서광암 3존 천불비상(瑞光庵 三尊 千佛碑像 國寶 第 108號)은 현재 충남 조치원의 서광암을 떠나 공주 국립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높이 91cm로써 비상 중 가장 큰 것으로 다행히 연화 좌와 2단을 이루는 옥개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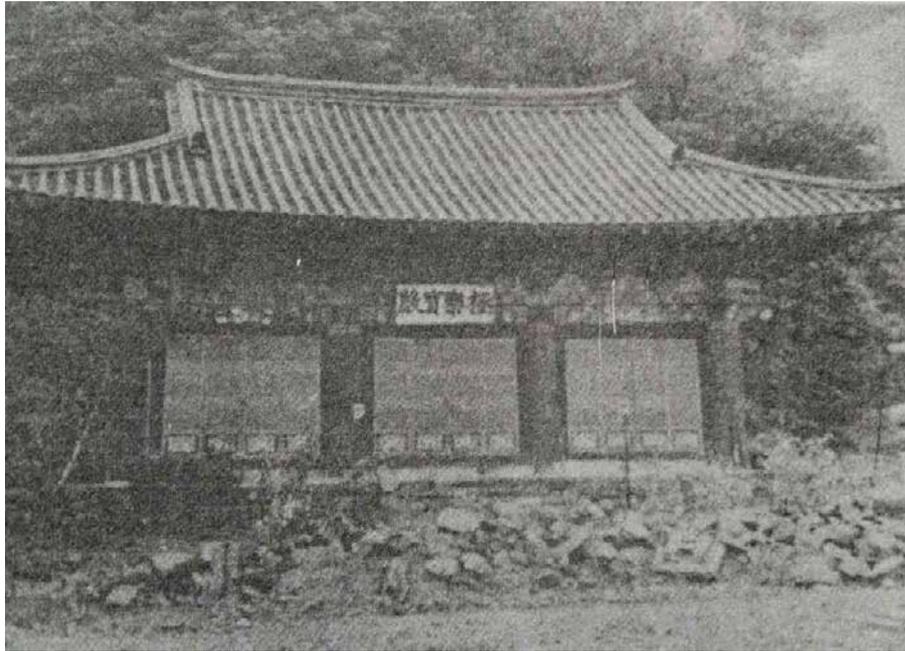
전면 아래에는 삼존상이 있으며 그 좌우에는 명문이 있어 계유년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존상을 제외한 각면에는 층단으로 천불좌상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옥개가 상하 2단을 이루고 있는 것도 또한 고대의 천개(天蓋) 양식을 따른 것이다. 이처럼 비암사 또는 서광암에서 전하는 4개석이 신라의 통일초에 만들어졌으나 그들은 모두 백제 멸망 직후의 고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4개석 이외에 연기군 서면 연화사의 2개석 (1978.12. 7.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물로 지정됨. 1. 보물 제649호 ~무인명 불상 부대좌 (戊寅銘 佛像附台座) 2. 보물 제 650호 ~칠존석불상(七尊石佛像)과 공주 정안면에서 전래되는 1개석(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음)이 있으나 모두 작은 작품으로서 아미타 3존과 반가상등을 조각한 것은 다른 유례와 같다.

비상은 원래 중국 육조시대에서 당대까지 유행되어 그 유품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것으로서는 이들 비암사계의 작품이 초유의 대표적 유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佛塔과 佛像(황수영)

## 비암사 극락보전(碑岩寺 極樂寶殿)



문화재지정 : 지방유형 제 79호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다방리

이 사찰은 창건한 연대의 기록이 없고 지금으로부터 2천여년전 한무제 5봉원년(韓武帝 五鳳元年)에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현재의 극락보전은 위치 방향등이 현존한 3층석탑등을 참작하여 볼 때 고려 중기에 창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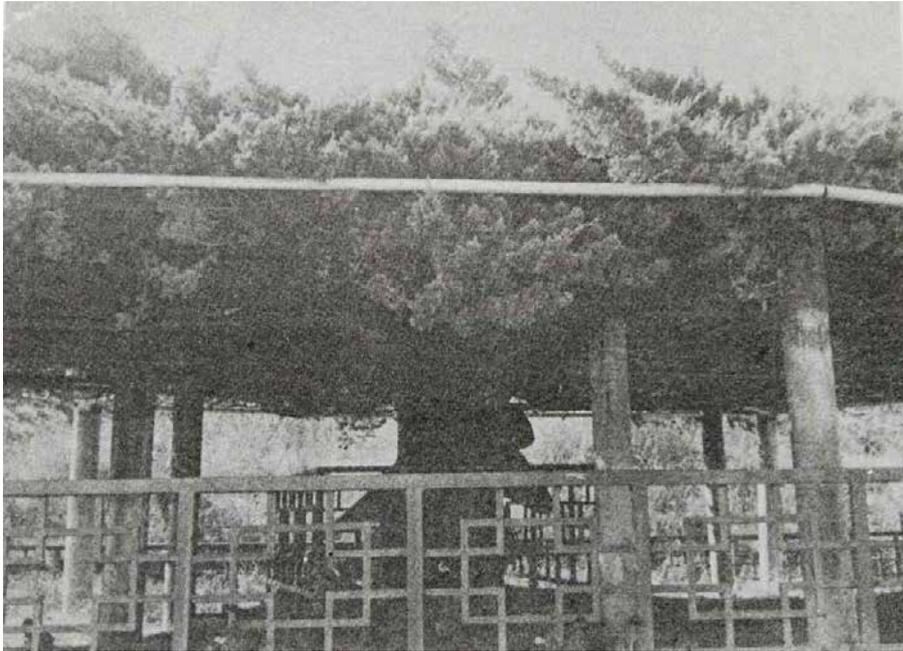
극락보전은 전면이 3칸 측면이 2칸인 우물마루, 내 7포(包)외 6포(包), 팔작 기와집이며 법당에는 앉은 높이가 1.9m의 아미

타불이 있고 그 뒷면에는 당가(唐家, 단집)가 있는데 모양이 장관이다.

이 사찰은 운주산 중턱아래에 위치하여 서남으로 향해 있으며 극락보전 앞에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화강암제(花崗岩製) 석탑이 있다.

\* 참고문헌 : 忠南道誌, 燕岐郡誌

## 봉산 향나무(鳳山香나무)



문화재지정 : 지방기념물 제 2호

위 치 :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이 나무는 효자 최중룡(孝子 崔重龍)이 심은 향(香) 나무로 줄기는 용(龍)이 서려 있는 것 같고 모양은 마치 우산(雨傘)을 펼친것 같으며 그 주위에는 가히 백여명이 둘러앉을 만큼 넓다.

이 나무는 이름이 말하듯이 향(香)나무로 그 냄새의 향기로움도 신통 하거니와 잎(葉)은 엄동설한(嚴冬雪寒)에도 절개(節介)를 지키고 있어서 상록수(常綠樹)로서 더욱 장관을 이루니 전국적으

로 그 유례가 드문 것이다.

한편 전설(傳說)에 따르면 이 향나무가 무성하면 길조(吉兆)라 했고 고사(枯死)의 형태가 나타나면 불길(不吉)했다고 전해 오고 있다.

## 연기향교(燕岐鄉校)



문화재지정 : 문공부고시 건조 제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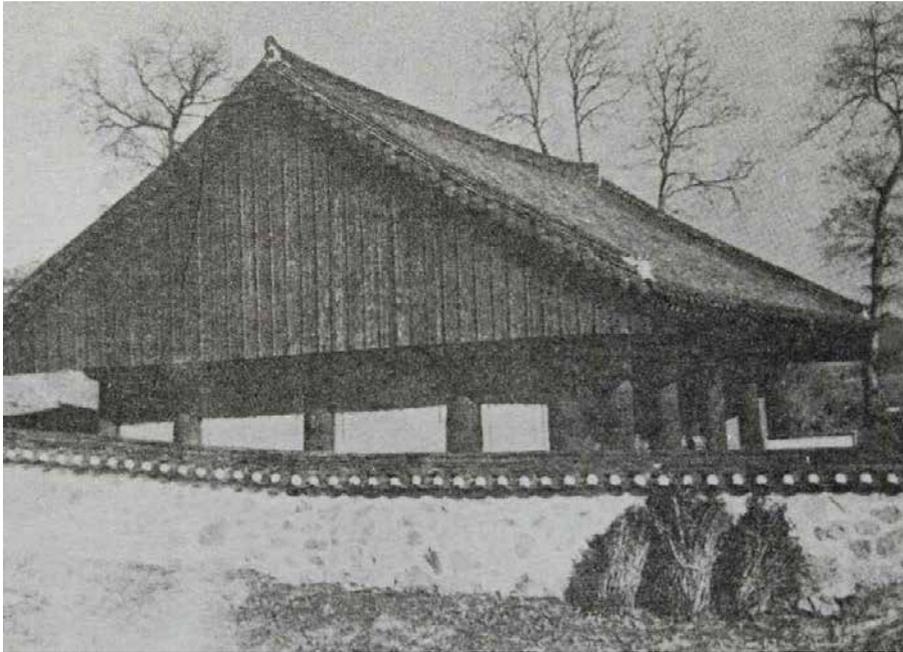
위 치 : 연기군 남면 연기리

1417년(태종16)에 대성전(大盛殿)을 창건하여 유학(儒學)을 강론(講論)하였으며 1875년(고종11)에 전사청(典祀廳)을 중수(重修)했고 1936년에는 명륜당(明倫堂)을 중수하였는데 여기에는 중국(中國)의 5성4현(5聖4賢)과 국내명사(國內名士) 18명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있다.

대성전은 맞배지붕에 정면(正面) 3칸 측면(側面) 3칸이다.

\* 참고문헌 : 文化財總攬

## 전의향교(全義鄉校)



문화재지정 : 문공부고시 건조 제25호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1417년(태종16)에 대성전 명륜당(大成殿 明倫堂)을 건립했다.  
1866년 (고종2) 에 명륜당을 중수(重修)했고 이듬해에는 대성전을 그리고 1970년에는 내삼문(內三門)을 각각 신축했으며,1972년에 대성전을 증축한바 여기에는 중국의 5성4현(5聖 4賢)과 국내(國內) 18현(賢)을 모시고 있다.

대성전은 맞배지붕에 정면 5칸 측면 4칸의 건물이다.

\* 참고문헌 : 文化財摠攬

## 문절사(文節祠)



문화재지정 : 문공부고시 건조 제26호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달전리(達田里) 원달전 마을에 있는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門)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선생은 1418년(태종18)에 태어나 1447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장원급제한 후 집현전 학사로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한글 창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1456년(세조2) 단종 복위운동이 김질(金礪)의 밀고로 발각되어 극형을 받았다.

1676년(숙종2) 홍성 노은리(魯恩里) 그의 옛집 옆에 세워진 녹운서원(綠雲書院)에서 외손(外孫) 박호(朴豪)가 봉사하던 중 1903년 고종의 어명(御命)으로 선생의 후손인 성주영(成柱英)이 사우를 건립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1967년 문절사(文節祠)라 이름하였다.

사당은 맞배 지붕에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소슬 3문이 있는데 퇴락하여 1981년부터 도비와 군비를 들여 새롭게 중건 중이며, 그의 출생지인 홍성군 노은리에 유허비가 있다.

\* 참고문헌 : 朝鮮名人傳

郡 誌

## 합호서원(合湖書院)



문화재지정 : 문공부고시 건조 제27호

위 치 : 연기군 동면 합강리 105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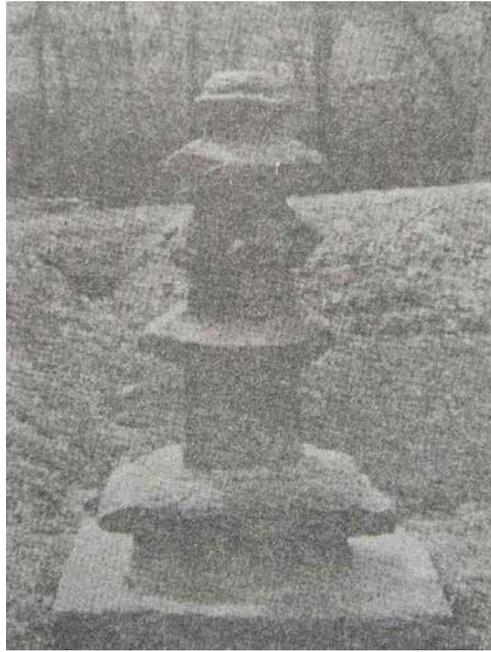
연기군 동면 합강리 「거렁뜸」 마을에는 안(安)씨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400여년 전 사화(土禍)로 인하여 피난와 숨어 살았다고 전하고 있으나 뚜렷한 기록은 없다. 이 마을에는 서원(書院)이 하나 있고 이 서원에는 정신적으로 이조 500년을 지배하여 왔던 주자학(朱子學)을 처음으로 원(元)나라에서 배워 온

안유(安裕) 선생의 위패와 영정(影幀)을 모시고 가을(음 9월12일)에는 군내 모든 유림(儒林)과 그 자손들이 한 데 모여 선생의 위업을 기리며 제향을 올리고 있다. 선생의 이름은 본래 “유”(裕)이나 “향”(珦)으로 고쳤다가 조선 문종의 어휘(御諱)를 피하여 다시 처음 이름으로 일컬게 되었다.

이분의 가르침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배양(培養)하고 전통적인 충효(忠孝)와 도덕(道德)사회 건설등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00여년 전에 그린 선생의 영정과 친필 2점이 소장되어 있어 문화재적 차원에서 중요히 다루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 대곡리 사층석탑(四層石塔)



문화재지정 : 문공부고시 석조 제15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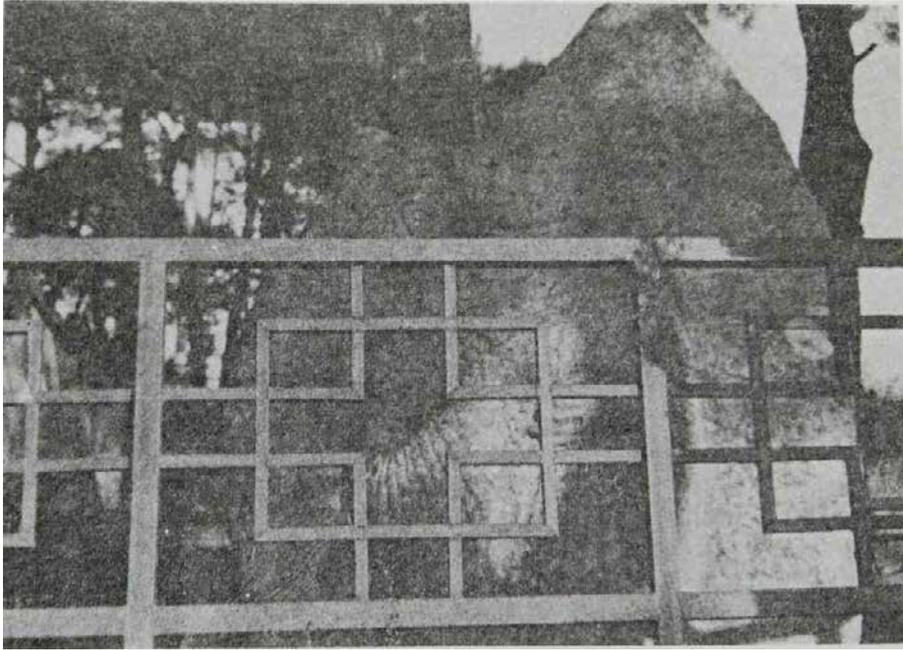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

전설에 의하면 신라시대 대곡리 탑상골에 큰 사찰이 있었다 한다. 이 사찰에 있었던 석탑을 대사동 민대감(閔大監)집 뒤뜰에 옮겼는데, 그 후로 민대감은 차츰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69년 장삿군에 의하여 전라도까지 밀반출되었던 것을 되찾아 현위치에 세웠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 송용리 마애불(松龍里 磨崖佛)



문화재지정 : 문공부고시 석조 제170호

위 치 : 연기군 동면 송용리

이 불상(佛像)은 연꽃모양의 돌에 부처가 서 있는 모습이 양각(陽刻)되어 있는데 좌측 위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그 파석(片石)은 잘 보관되어 있다.

파손된 유래는 약 90여년전에 큰 뱀이 올라 앉아 있는 것을 벼락(落雷)이 내려 뱀을 죽이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 옛 성터



### 總 論

연기지구에는 다음의 9개성이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다음의 9개성을 대상으로 한다.

1. 高麗山城
2. 高山山城(雲住山城)
3. 李 城
4. 鵲 城

5. 金 伊 城
6. 土 城 址(全義鄉校뒤)
7. 黃牛山城
8. 唐 山 城
9. 元帥山城

이상의 9개성 중에서 高麗山城, 高山山城, 李城, 鵲城, 金伊城, 土城址는 구(舊)전의 지구에 속했고 나머지 唐山城, 元帥山城, 黃牛山城은 구(舊)연기 지구에 속한다.

현재의 행정 구역으로는 양지구(兩地區)가 통합되어 단일 구역으로써 연기군이지만 구 전의현과 구 연기현은 고대부터 근세에까지 별개의 지구로 간주(看做)되어 왔으며 산성 조사에서도 편의상 역사적 지리적으로 구별되는 양지구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구 전의현은 차령산맥 속에 형성된 소읍(小邑)인데 반하여 구 연기현은 금강 유역에 형성된 소 읍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 전의현은 대체로 경기지구(京畿地區)와 충청지구를 남북으로 크게 양분하는 차령산맥의 협곡(峽谷)으로 뚫린 구가도(舊街道)를 장악하는 요충(要衝)이며 구 연기지구는 고래로 미호천의 하류와 금강 중류를 장악하고 있는 요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구 전의지구의 육산성(六山城)은 구 전의읍의 주변에 축조되어 협곡(峽谷)으로 뚫린 남과 북을 잇는 구 가도를 장악하고, 구 연기현의 삼산성(三山城)은 금강변인 구 연기읍

의 주변에 구축되어 구 연기읍을 수호하므로써 남과 북을 잇는 구가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앞서 말한 바 있는 구성(九城)중에서 칠성(七城)은 백제식 산성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서기 475년에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이 왕도한산(王都漢山:現 廣州)에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살해당하고 남진하는 장수왕(長壽王)의 고구려군에 의하여 문주왕(文周王)이 차령산맥 남쪽인 웅진(熊津:現 公州)으로 왕도를 옮김으로써 웅진 북(北)의 관문으로 전의지구가 왕도방위의 일선이 되고 웅진동(東)의 연기지구가 역시 왕도 방위의 일선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地), 한주조(漢州條)에 의하면 중원경(中原京: 충주)이 고구려의 국원성(國原城), 괴양군(槐壤郡:槐山)이 고구려의 잉근내군(仍斤內郡), 흑양군(黑壤郡:진천·음성)이 고구려의 금물노군(今勿奴郡), 백성군(白城郡:안성·직산)이 고구려의 나혜총(奈兮忽), 당은군(唐恩郡:아산·평택)이 고구려의 당성군(唐城郡) 이었고, 서원경(西原京:청주)과 대록군(大麓郡:목천·전의)에 고구려 지명이 붙지 않았으니 북은 천안까지 동은 진천 음성까지가 고구려 영토였던 것이다. 따라서 웅진 왕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의지구를 방위하여야 했고 연기 지구를 방위해야 했으니 전의지구와 연기지구에 구축한 산성들 거개가 웅진 왕도 시대였던 문주왕(文舟王), 삼근왕(三斤王), 동성왕(東成王), 무녕왕(武寧王) 대에 축조하고 또한 보강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차령산맥에 축조된 안성의 서운산성(瑞

雲山城), 직산의 위례성(慰禮城), 천안의 흑산산성(黑山山城), 전의의 고산산성(高山山城), 예산 대흥(大興)의 임존성(任存城) 등은 북방의 고구려와의 국경선에 축조된 백제성으로 볼 수 있고, 당산성 원수산성등은 대전과 유성 방면의 모든 성과 함께 동방의 국경선에 축조된 백제성으로 보고 청주의 상당산성(上堂山城), 강서면(江西面)의 부모산성(父母山城), 남이면의 은적산성(南二面, 恩積山城), 연기군 동면의 황우산성(黃牛山城)등 금강 동쪽의 여러 성들은 백제성인 시대도 있었고 신라성인 시대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전의지구와 연기지구의 여러 성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러한 산성들이 위치가 다음과 같은 고래(古來)의 교통로에서 대체로 2km이내의 거리에 있다는 점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서울 방면에서 내려오는 큰 길이 천안 삼거리에 이르면 두 갈래로 갈라진다. 어느 한 길은 병천을 거쳐 청주로 들어가 문경새재를 넘어 상주(尙州)로 통하거나 영동 김천을 거쳐 대구 감영(大邱監營), 경주동래(慶州東來)의 거진(巨鎭)과 통하는 대로인데 이 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고려산성과 고산산성이며, 또한길은 공주감영(公州監營)을 거쳐 논산 강경 전주 광주 순천의 거진(巨鎭)과 통하는 대로인데 이 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고려산성 전의향교 뒷면 토성(土城) 이성(李城) 작성(鵲城) 금이성(金伊城)등이니 자고로 이러한 산성들의 중요성이 얼마 만한가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는 구 전의지구의 여러성들은 구 전의읍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준령(峻嶺)에 견고하게 구축된 것이어서 백제 말에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 의한 백제 공격때도 나당군이 서울 방면에서 이 길을 따라 공주 부여 등지로 남하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백제 재건을 위한 항전(抗戰)의 근거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

## 各 論

### (1) 高麗山城

位置：全義面 高登里

標高：280m

土築

周長：258.5m

幅：2m

高：2m ~3m

이 산성은 전의 북단이며 천안 남단에 위치한 고려산의 정상에 축조된 토성으로 문주왕(文周王)이 남래(南來) 당시 직산 천안까지를 점거했던 고구려의 산성이다.

정상의 흙을 긁어내려 쌓은 전형적인 고구려 식의 토성이며 기저부(基底部)는 석축으로 현재도 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근자에 와서는 사학계(史學界)에서 장수왕(長壽王)과 문자왕(文咨王) 당시 고구려의 남진한계선(南進限界線)이 문제되고 있

는데, 이 토성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실물(實物)로써 해답을 주고 있다. 즉 문헌사학적(文獻史學的)으로 앞서 총론(總論)에서 인용한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의 기사에 의하여 직산 천안지구까지 임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이 토성은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이 토성은 금년 8월(1981년)에 예비조사를 한 단국대학교(檀國大) 박물관장 정영호(鄭永鎬) 박사와 청주서원학회 이재준(淸州西原學會·李在俊)씨가 고구려 토성임을 확인했고 이어서 8월 15일에 앞서 정영호 박사와 동국대학교 박물관장 황수영(東國大·博物館長·黃壽永) 박사의 지휘아래 본 조사를 실시하여 또 한번 고구려 산성임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그 토성 내부에서 다수의 고구려식 고와편(古亞片)과 토기편(土器片)이 수집되고 철배(鐵杯)가 발견되었다.

이 토성 가까이로 경부선 철도와 경부국도(國道), 그리고 천안에서 병천(並川)을 경유해서 청주로 통하는 대로와 경부 고속도로가 달리고 있으니 이 산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삼남(三南)대로를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산성이 위치한 고등리(高登里)의 “고등”(高登)에 대해서는 그 유례로서 다음과 같은 고구려의 국신(國神)인 고등신(高登神)이라는 신명(神名)이 있으니 참고가 될 것이다.

北史專 高句麗常以 10月祭天 多淫祠 有信廟二所 一日夫餘神 刻木作婦人象 二日高登神 專是始祖扶餘神之子 竝置官司 遣人守 蓋恒伯女朱蒙專 (三國史記 祭祀条)

高登里는 고등신(高登神)에서 유래된 동명(洞名)인데 고등신은 시조인 부여신(扶餘神)은 아들로써 역시 목각신(木刻神)이었다.

이러한 목각신(木刻神)은 지금 고등리에는 없고 고등리에서 천안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어선 대곡리에서 모시고 있다. 때문에 고려산성과 함께 고등리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대곡리는 이러한 목각신을 중심으로 하여 민속촌으로 지정되어 있다.

## (2) 高山山城 (속칭 雲住山城)

位置：全 東面 美谷里 全東面 靑松里

標高：460m

石築

周長：3,074m

幅：2m

高：2~8m

井：古井 2

속칭은 「운주산성」 이라 하지만 증보동국여지승람(增補東國輿地勝覽) 전의편 산천조(全義篇山川條)에는 「고산재현동팔리(高山在懸東八里)」 라고 명기한 것으로 보아서는 운주산성이 아니라 고산산성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운주산성이라 하는 것은 금이성(金伊城)과 현남(懸南)에 있는 산을 운주산이라는데서 연유된 착오

임이 분명하다. 특히 여지승람(與地勝覽)에 「이성재운주산 북봉(李城在雲住山北峯)」 이라 하였고 「금이성재운주산(金伊城在雲住山)」 「운주산재동남칠리·여증산고산정치(雲住山在東南七里·與甌山高山鼎峙)」 라고 명기 하였으나 전의현이 동팔리(東八里)에 위치한 산성은 고산 산성임이 확실한 것이다.

주위(周) 3,000m가 넘는 웅대한 규모의 이 산성은 거의 정사각형(正四角形)으로 네 귀에 높이 솟은 네 개의 봉우리를 성벽으로 연결하여 구축하였기 때문에 그 내부는 거대한 분지형(盆地形)으로 되어 산림이 있고, 전답이 있으며 이것을 경작하는 가구가 살고 있다.

이 산성의 출입구는 곤방(坤方)으로 터진 수구(水口)쪽에서 암석으로 출입문이 되어 있다. 이 곤방의 출입구를 통하여 멀리 이성작성 금이성등의 산성을 볼 수 있고, 성벽을 따라 넓이 2m의 도로가 원상을 유지하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천하장관으로 등산길로 아주 적합하다. 또한 여지승람(與地勝覽)을 보면 이 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고산산성 석축을 보면 주위가 5.132척이나 되고 안(內)에는 우물이 셋(有三井)이 있었으나 오늘날엔 없음.

고산산성에 「내유삼정 금폐 (內有三井 今廢)」 라고 전해지지만 이 산정에 「三井」 는 지금도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3) 李 城

位置 : 全東面 莘芳里

標高 : 330m

土築과 石築

周長 : 790m

高 : 2m ~5m

幅 : 2m

井址 : 2

이 산성은 전의읍의 남방 안산(案山)인 이성산(李城山)에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지승람에는 「재 운주산 북봉 석축 세전 이도 고거 그중 관폐 주위 1184척 내유 1정 금폐」(在雲住山北峰 石築世傳 李棹故居 其中寬敞 周1184尺 內有一井今廢)라고 하였으니 이성은 운주산 북봉에 있는 산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금이성이 있는 산은 운주산이니 이 운주산에 대한 북봉(北峯)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산성을 이성이라 칭하고 이성(李城)으로 표기하는데 이성은 원래가 「이성」(離成)으로 칭하여 표기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성(離城)의 이(離)는 역경(易經)에서 「남방」(南方)과 「화」를 의미하고 또 「정오방」(正午方)을 뜻하는데 이 산성이 전의읍의 정오방의 안산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산(離山)은 남산(南山)이란 뜻이며 이성(離城)은 남성(南城) 즉 남산

성(南山城)이란 뜻이 되겠지만 이(離) 그자는 지리과멸(支離破滅)등의 지명이나 산명 성명(城名)으로서는 좋은 글자라고 할 수 없었기에 후세에 이르러는 자연 이성(李城)으로 표기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산성(山城)은 전의읍의 정오방(正午方)에 위치한 남산에 있는 산성이니 전의의 남성이고 남산성이니 이성(離城)에 틀림이 없고 이성산(離城山)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 산성에는 북쪽 천안지구에서 고려산성 아래 고등리를 거쳐 전의읍으로 들어오는 가도와 전의읍에서 공주로 가는 서남소로(西南小路)와 전의읍에서 송성리(松城里)를 거쳐 연기로 가는 남소로 가는 남소로(南小路)등이 지호지간(指呼之間)으로 손바닥위에 들어나듯 뚜렷하게 보인다.

이 산성은 뾰족한 산봉을 헐지않고 봉우리를 살리고 사면(斜面)을 이용하여 축조했기 때문에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그중관폐」(其中寬敞)라고 표현했듯이 성중(城中)이 의외로 높고 넓은 감을 준다. 이 산성의 남쪽 사면의 석축 부분은 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지만, 동남방의 토축부분(土築部分)은 상전개발(桑田開發)로 황폐되었으니 애석한 일이며 북쪽 부분은 근자(近者)의 개인분기 조성(個人憤基造成)으로 산 모양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 산성을 구축할 당시 전의읍의 안산이기 때문에 뾰족한 봉우리를 전면 다치지 않고 사면(斜面)을 이용하여 구축한 바가 옛날의 술법가(術法家)의 높은 수준이라면 320m의 산봉에 북향으로 소위 명당 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망발한 바가 오늘날의 술법가

의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 (4) 鵲 城

位置 : 全東面 松城里

標高 : 3.315m

經長 : 東西 7m 南北 8m

高 : 2m ~ 5m

이 성은 이성(李城)과  
금이성을 잇는 직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였으며 그 작은 규모로 보아 하나의 산성으로 볼 수가 없고 초소(哨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작은 성의 위치가 이성과 금이성의 중간 지점일 뿐 아니라, 남소로(南小路)의 송성리(松城里)와 서남소로(西南小路)의 신방리(莘芳里)를 잇는 간도변(間道邊)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성(鵲城) 아래 송성리 쪽으로 사적지(寺跡址)가 있는데 언제 어떠한 사찰이었고 또 언제 폐사(廢寺)가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폐사 터에는 초석들과 석탑기단부(石塔基壇部)등이 반파되어 방치되어 있고 고와파편(古瓦破片)이 어지럽게 산재해 있다. 폐정변(廢井邊)에는 희귀하다는 호장목(虎杖木)이 무성하다.

요컨대 작성(鵲城) 밑에 위치한 폐사지(廢寺址)는 사찰이 장기간에 걸쳐 폐사가 되어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파괴의

자취가 역연하니 이 사적지(寺跡址)에서 곧바로 건너다 보이는 물도리(水圖里)의 개미굴 용맥(龍脈)에 썼다가 부관참시(剖棺斬屍)당했다는 김질(金磧)의 분기(墳基)와도 관련지어서 고찰할 수도 있겠는데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다만 여지승람(與地勝覽)에 「운첩사재운주산 최유종시 사재연하이층만제기중소심송낙강활수락용강 탐임무지선 창기반공회두진세원로납자종용」(雲帖寺在雲住山 崔有悰時 寺在烟霞裏層巒茅畿重少深松落江闊水落溶講榻臨無地 禪窓倚半空回頭塵世遠老衲自從容)이라고 전하는 운첩사(雲帖寺)터로 일단 수궁해 볼 따름이다.

#### (5) 金伊城

位置：全東面 陽谷里

標高：420m

石築

周長：714m

高：3m ~ 8m

幅：2m

井址：1

금이성(金伊城)은 세칭 「쇠성」이며 금성(金城)으로 표기한 바 삼국 사기 성왕조(聖王條)등에 보이는 금현성(金峴城)이 바로 이 성이며 일본 서기(日本書紀)의 천지기(天智紀)에 보이는 소류성(疎留城: 솔재 : 松城)이 이 성일 것이다.

이 산성은 금사리(金砂里)쪽에서 정북(正北)을 향하여 30여리를 뺀 산맥의 최고봉인 운주산(속칭:금성산)에 구축되어 북으로 전의 천안 방면은 물론, 남으로 금강 일대를 굽어보며 동으로는 팔봉산까지를 시계(視界)에 넣고 있다. 전형적인 백제 산성으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구축되어 철옹성(鐵甕城)으로 불리우고 「쇠성」으로 불리우지만 특히 동남방의 장태부(將台部)의 석축은 높이 10m가 넘는다. 성문은 간방문(良方門)으로 고산산성의 신방문(神方門)과 마주 보고 있다.

전의 향교 뒤 토성에서 직선 거리 6km로서 고려산성에서 토성까지의 직선거리인 6km와 같다.

성벽 성축의 보존은 양호한 편이나 북서 부분의 석축은 근동 부락민들이 너구리 굴을 찾기 위하여 헐어서 원형을 잃었다.

#### (6) 鄉校 뒤 土城

位置：全義面 邑內里

標高：80m

土築, 土石築

周長：818m

高：2m ~ 5m

幅：2m

形態：半月形

이 토성은 구릉에 축조되어 인가와 접해 있기 때문에 파손이 심

하고 황폐하며 거의 원형을 잃어서 일견해서는 토성으로 알아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원래가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구축했기에 성지복원(城址復原)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북쪽 부분의 토석축 부분은 원형을 대체로 보존하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이 토성의 형태가 반월형이며 이 반월형의 토성이 중심이 되어, 정북(正北)에 고려산을 거느리고 정남(正南)에 이성 작성 금이성을 거느리고 정동(正東)은 고산산성을 거느리고 있는 형국(形局)이며 한편으로는 토성내에 오랜 기와의 파편과 오랜 토기(土器) 조각이 널리 산재해 있으니 이러한 점들로 보아, 특별한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 (7) 黃牛山城

位置：燕岐郡 東面 鳴鶴里 (황우재)

標高：200m

土築, 土石築

周長：321m

高：2m ~ 5m

幅：2m

이 성은 금강 동안(東岸)에 웅립(聳立)한 황우산(黃牛山)의 정상에 구축한 토성이다.

이 성은 총론에서 언급한대로 상당산성(上堂山城：淸州) ~ 父母

山城(江西面) ~ 은적산성(恩積山城:南二面) ~ 황우산성(黃牛山城)으로 대체로 십리 거리를 두고, 금강 동안(東岸)까지 뻗은 산성 계통에 속하고 다시 부강포구(黃江浦口)를 중심으로 위쪽에 매포산성(梅浦山城) 왼쪽에 황우산성 중앙에 성산산성(城山山城 : 부강뒷산 위성재) 등 3성이 있는데 이 계통에 속하는 산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황우산성은 강물이 크게 돌아서 들어오는 금강 종류의 난소(難所)인 용당포(龍塘浦)를 병풍처럼 둘러진 절벽 위에 구축되어 동으로는 앞서 말한 은적산성(恩積山城) 부모산성을 보고, 금강 건너 서쪽으로는 원수산성, 당산성등과 대치하고 있는 중요한 산성인데 기이하게도 그 축성법(築城法)은 전의 북(北)의 고려산성 축성법 같이 산성의 흙을 긁어내려서 단애(斷崖)를 만들어 산정을 구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을 백제식 산성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신라식 산성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차라리 고려산성과 같은 축성법이니 일단은 고구려가 구축한 것으로 보고 검토해 볼만한 것이다.

즉 이 산성의 위치가 청주로부터 불과 서(西)로 40리에 있으니 청주방면을 고구려가 영유한 당시에 고구려가 백제와의 경계인 금강동안요지(東岸要地)인 이곳에 산성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청주방면에 대한 고구려의 일시적 영유(領有)는 장수왕대(長壽王代)와 문자왕대(文咨王代)에도 있었겠지만 다음과 같이 고구려 말인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조(眞平王條)와 고구려본기 건무왕조(建武王條)에 보면 낭벽성(浪壁城)은 청주이며 낭벽성을 점거하고 있던 고구려군을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공격하여 항복시켰다는 것이니 이즈음 확실히 청주방면을 고구려군이 영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대로 낭벽성(청주)의 서40리의 황우산에 고구려식 산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낭벽성이 함락한 다음해인 건무(建武) 14년부터 고구려는 천리장성의 대역사(大役事)를 시작했고 그 감역(監役)을 연개소문이 맡게되니 연개소문은 이즈음 고구려에 건재했었다.

한편 연기구지(燕岐舊誌)는 다음과 같이 부강 부근에 개소문산성(蓋蘇文山城)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蓋蘇文山城 … 在錦芙蓉山上 高句麗泉蓋  
蘇文築城于址 習騎射專 今有形址

개소문산성(蓋蘇文山城)은 고구려의 천개소문(泉蓋蘇文…=淵蓋蘇文)이 축성한 것이란데 금남 부용산에는 산성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지방의 유식자들은 개소문산성을 부용산과 같은 방향에 있는 금강 서안(西岸)인 구즉면 신동리(九則面 新東里)의 매방산성(梅放山城)에 비정(比定) 한다.

연개소문이 생존시에는 고구려가 낭벽성(浪壁城… 청주)을 영유하여 청주 방면에 산성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그 산성은 실은 금강의 동쪽이지 서쪽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금강의 서쪽인 금남의 부용산이나 구즉면의 매방산에 개소문 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니 차라리 개소문산성이란 청주 서(西) 40리 금강 동안 (

東岸)에 위치한 황우산 정상에 고구려식 토성인 황우산성일것이라고 비정(比定)해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황우산성이라는 산성 이름은 후세에 「황(黃)은 중앙상 中央上」이라는 오행론(五行論)을 원용(援用)해서 작성한 명칭이고 원명은 「누리쇠재」가 아니었던가 한다.

누리쇠재는 황우성으로 한자(漢字)로 표기할 수 있고, 황우성은 다시 「황우재」로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불려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명(原古名)이라고 생각되는 「누리쇠재」의 「누리쇠」란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일까? 「누리」는 「黃」 「世」의 뜻이 있고 「쇠」는 「銖」이란 뜻이며 「쇠」(劍)자로 표기하여 옛날에 남자 이름으로 흔하게 쓰인 말이다.

한편 「연개소문」이라고 표기하고 천개소문(泉蓋蘇文)이라고 표기하여 전하는 연유는 과연 무엇일까?

日人學者 稻葉岩吉은 “高句麗에 泉男生墓誌仁 について  
(朝鮮史講座 特別講義 所收)

內藤虎沈郎은 “近護 の二三史料 (讀史叢錄所收)

羅振玉 : 唐代海東藩閩誌存

李丙濤 : 國史大觀

李弘植 :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韓國古代史研究所收)

이와같은 논고에서 연개소문(천개소문)의 연개(淵蓋)에 대한 해석은 일치를 못보고 구구하지만 「蘇文」 「쇠」 「劍」의 좋은 글자의 표기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즉 「누리쇠재」의 「쇠」와 일치하다는 뜻이니 「누리쇠재」의 경우도 「쇠」는 「소...牛」의 뜻보다도

「쇠...釧」의 뜻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한편 연개(泉蓋)는 원어(原語) 열 [泉水] 의 표기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만일에 그렇다면 연개소문은 「어리쇠」의 표기로 볼 수 있으니 이 「어리쇠」가 「누리쇠재」의 「누리쇠」와 가까워지는데 이것이 이 경우 주목이 된다.

그러나 지금단계로 「누리쇠재」 = 황우성(黃牛城)이 「아리쇠재」 = 연개소문성(淵蓋蘇文城)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황우성(黃牛山城)이 고구려 토성인 것만은 거의 확실하니 황우성이 강건너 부용산에 있다고 전하는 개소문 산성이 실제로는 황우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언급해 둘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 (8) 唐山城

位置 : 南面 燕岐里 (舊 燕岐縣後山)

標高 : 150m

石築

周長 : 1430m

高 : 2m ~ 8m

幅 : 2m

구 연기현의 진산(鎭山)이며 미호천 하류에 위치한 당산의 정상 2개의 산봉을 연결하여 구축한 전형적인 백제산성이다.

당산은 표고 150m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동쪽과 북쪽을 미호천이 감고 흐르기 때문에 얕은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더구나 당산의 산용이 높지는 않지만, 크게 안정되어 위압감이

있어서 동북으로 멀리 진천,음성까지 펼쳐진 미호천 유역이 평야 지대를 제압하며 미호천 건너 중류지역의 요충인 부모산성(父母山城)과 상당산성(上黨山城)등과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산성은 동쪽이 청주 방면에서 웅진에 이르는 첫 관문인 연기현을 수호하여 유성지구와 전의지구를 잇는 구가도(舊街道)의 안전을 보장하는 산성이기도 했었다.

청주의 낭벽성(娘臂城)조차 고구려와 신라의 쟁탈물이 되고 전의 북쪽의 고려산에 고구려가 남진기지(南進基地)로서 산성을 구축하고 당산에서 불과 강 건너 10리에 위치한 황우산에 고구려가 산성을 구축한 그러한 시대에 당산성의 비중이 막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산성은 그 전체가 전의지구의 금성이나 이성같이 견고하게 구축되었지만 특히 부모산성을 바라보는 동북방의 황우산을 향한 동남방은 석재(石材)가 더욱 거대하고 4m에서 6m가 높음으로써 더욱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 (9) 元師山城

位置：南面 陽山里 (가래기)

標高：230m

여지승람(與地勝覽)이나 구 연기지(燕岐誌) 등에 원수산성의 이름은 전하지만 원수산의 정상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하나의 성곽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특히 이병도 박사의 성곽에 관한 정의에 따라서 성곽을 「그 규모의 대소(大小) 기술의 정조(精粗)를 막론하고 공격의 적(敵)에 대한 방수의 목적으로 어떠한 구역의 거리, 혹은 주위를 책정하여 토(土) 석(石) 진(甄: 벽돌) 혹은 목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융기(隆起) 또는 구축한 일종의 건축물의 연장체를 이룬 것」 이라고 할 때, 원수산성은 하나의 산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수산은 그 산모양 자체가 뾰족하여 하늘을 향하여 돌출하여 사방이 높이 깎아지른 층암절벽이기 때문에 인공을 가할 수도 없고 가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산성일 수도 있는 것이다.

원수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가래기」 쪽으로 뺀 두 갈래의 좁은 능선이며 이 능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오를 수 없고 남북 경(經) 60m 동서경 30m미만의 마당으로 된 정상은 역시 사면이 암석 절벽으로 삭립(削立)되었기 때문에 석축도 토축도 할 필요가 없고 또 할 수도 없이 그대로 석성(石城)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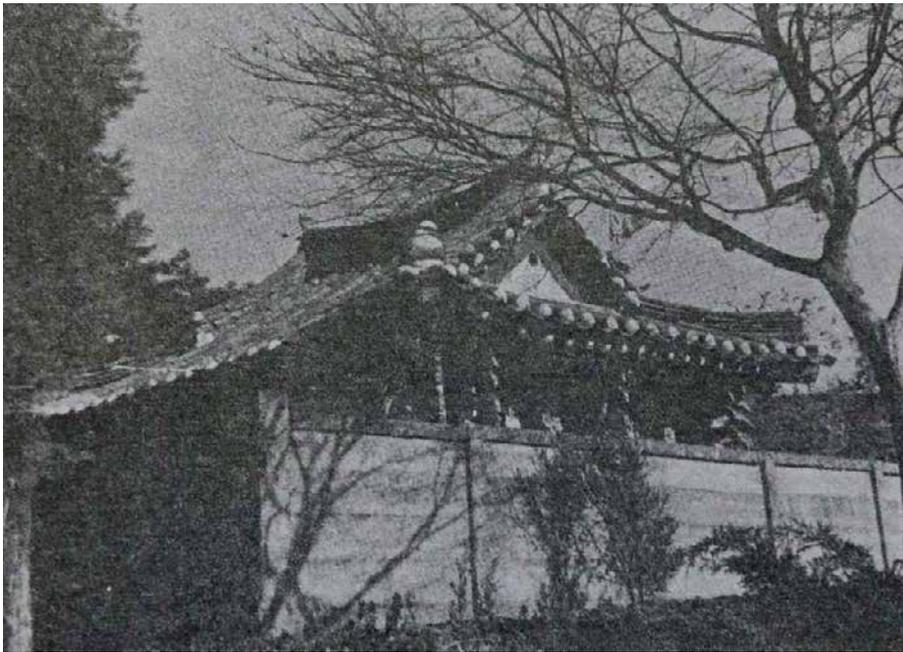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옛날부터 전하는 원수산성의 명칭 자체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본 견해이고 인공적인 건축물이 없으니 산성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성이 아닌 그러한 맹랑한 산성인 것이다. 그래서 여지승람에 「속전주군지지(俗傳駐軍之地)라고 하여 속전(俗傳)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겠지만 요컨대 「산성이다 아니다」 하고 왈가 왈부가 있을 수 있는 이 원수산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훗날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원수산을 형제봉이라고 하듯이 원수산의 북쪽에 원수산의 산 모양과 흡사한 또 하나의 산봉이 솟고 그 남쪽에 또 두 개의 정상에

우뚝한 산봉이 있어서 사봉(四峰)이 거의 남북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같은 남면을 국도쪽인 갈운리 방축리 지구와 금강쪽인 진의리 양화리 지구로 2등분 하는데 양화리 쪽에서 방축리로 넘어오는 셋길이 먼 옛날에는 두 지구를 연결했던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은 마루턱에서 곧바로 원수산 밑을 통과하게 되고 마루턱에 원수산 쪽으로 넓이 2m 길이가 50여m 높이가 2m의 딱 같이 쌓은 토성지(土城址)가 있는데 이 토성지가 원수산성이라는 지명과 함께 주목될 「가래기」라는 지명 또는 성명(城名)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다.

## 독락정(獨樂亭)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나성리

조치원에서 대전방향으로 국도를 한참 가다보면, 금강을 가로질러 폭 7m, 길이 600여m의 금남교(錦南面)가 나타난다. 맑은 은모래와 주위의 송림은 과연 연기 8경중의 하나임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

눈을 들어 왼쪽 송림을 자세히 보니 정자(亭子) 하나가 고송(古松)을 옆에하고 서 있다. 이 정각이 독락정(獨樂亭)으로 건립된

내용을 알아보자.

이 건물의 주인공 임목(林穆)은 서기 1364년 (고려 공민왕 13)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 문희공 난수(蘭秀)를 따라 남면 양화리(陽化里)에서 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 때 관리가 되어 여러 고을을 거치다가 고향에 내려와 현재의 나성리(羅城里)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이 정자를 건립하여 여생을 지냈는데, 정기(亭記)로는 남수문기(南秀文記)가 있고 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되어 있는데, 북쪽 50m 지점에는 그의 아버지 난수의 가묘(家廟)가 있다.

\* 참고문헌 : 東國輿地勝覽

## 어서각(御書閣)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고정리

연기군 남면 고정리에 국사봉(國土峰)을 등에 지고 금강(錦江)을 앞으로 어서각(御書閣)이 자리잡고 있다.

이 동네에는 연산군(燕山君)때부터 대대로 강씨(康氏)가 살고 있는데, 어서각의 주인공 강순룡(康舜龍)은 본이 곡산(谷山)으로 황해도 곡산군 운중면 임계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고려 충혜왕때 문무과(文武科)에 장원한 후 원나라에 들

어갓다가 1354년(공민왕3) 2월에 귀국하여 밀직사사(密直司事)에 오르고 같은해 7월에는 은성부원군(銀城府院君)에 이르렀다.

그후 우왕(禡王)이 즉위하면서 세상이 어지러움을 보고 퇴은당(退隱堂)이라 호를 고치고 초야에서 후배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 무렵 가람산 치마대(馳馬台)에서는 이성계가 무술을 연마하다 용연(龍淵)으로 물을 마시러 내려와 마침 그 곳에 있던 성후(聖后: 강순룡의 여동생이며 태조 즉위후 신덕왕후에 책봉되어 방편방석의 두 왕자와 경순공주를 낳았다)에게 물 한 그릇을 청해오니, 표주박에 물을 떠서 수양버들 잎을 주루루 따서 물에 띄워드리니 마침 갈증이 심한 중이라 이유도 묻지 않고 나뭇잎을 불며 마신 후에야 그 이유를 묻자 소녀가 보기엔 장부께서 갈증이 심하신 듯하여 급히 마실까 봐서 서서히 잡수시도록 잎을 띄웠다 하니 이성계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에 이성계가 등극하면서 성후를 현비(懸妃)에 책봉한 후 그의 아버지(康允成)에게는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을 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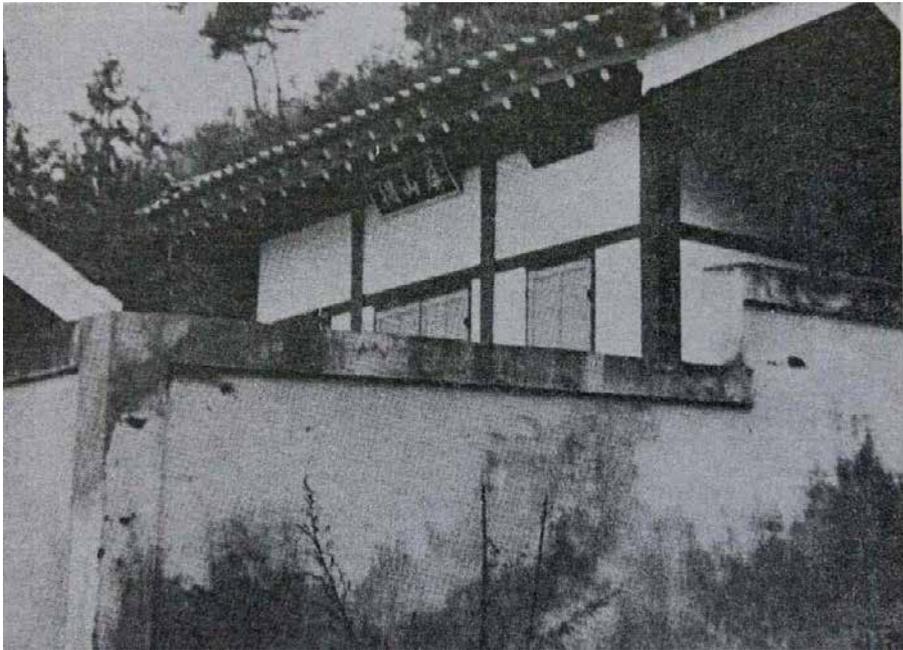
남매지간이 되는 강순용에게는 교지를 친필로 하사하였으며 그 어서(御書)를 후손들이 간직하여 오던 중 영조대왕이 이를 보고 친필로 발문(跋文)을 써서 어필각을 건립토록 하였으며 그 후 정조(正祖) 대왕은 신덕왕후가 출생한 곳에다 비와 비각(碑閣)을 세웠고 현재의 어서각은 영조때 사액(賜額)되었던 것을 1846년 (헌종 12년)에 건립하였다.

그후 고종황제가 이 사적을 보시고 친필을 하사하시니 네분 임금 [태조, 세종, 영조, 고종] 의 친필을 보장 하였으나 원본은 현재 규

장각에 보관중이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族 譜

## 병산사(屏山祠)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면 소재지에서 황룡리를 지나 한참을 들어가다 보면 대덕군 구죽면과 접하는 곳에 달전리 마을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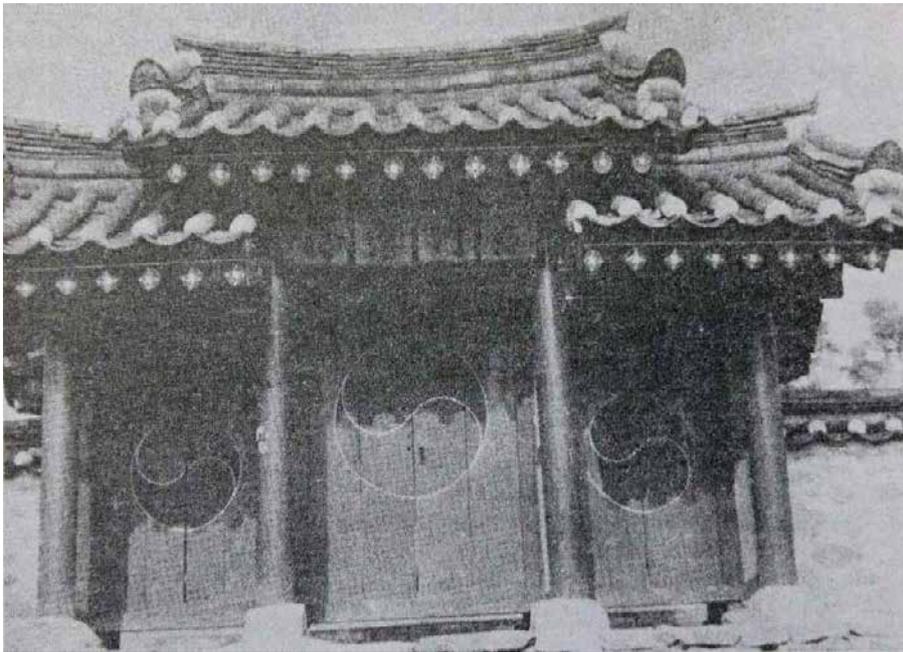
이 동네 (원달전)에는 성씨(成氏)성을 가진 17가구가 약 400여 년전부터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데, 이곳에는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문절사(文節祠)와 한말의 항일의사(義士) 성기운(成璣運) 선생의 사우 병산사(屏山祠)

가 자리잡고 있다.

일찌기 선생은 청도(淸道)에서 출생하여 일제의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호적 부역을 단호히 거부하는등 불굴의 투지로 일제히 항거하다 옥고를 치루는등 항일운동에 앞장섰으며, 그후 달전리로 이주한 후로는 후배 양성에 진력하니 선생이 돌아가신 후 1972년 문인과 고을 유림등이 사우(병산사)를 짓고 매년 음3월 7일에 많은 후손들과 유림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이곳에는 선생의 문집과 영정 목판 250개를 보관중이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 봉산영당(鳳山影堂)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조치원읍 봉산동

최용소(崔龍蘇)의 영정(影情)을 모신곳, 최용소는 이조 세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本貫)은 강화이며, 고려때 처음 의능직(毅陵直)으로 시작하여 공조전서(工曹典書)에 이르렀다. 1394년(太祖 3년) 통호사(通好使)로 일본 구주에 가서 절도사 이마까와(今川了俊)에 국서를 전하고 포로 570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후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방간(芳幹)의 사건으로 파면되고 장형(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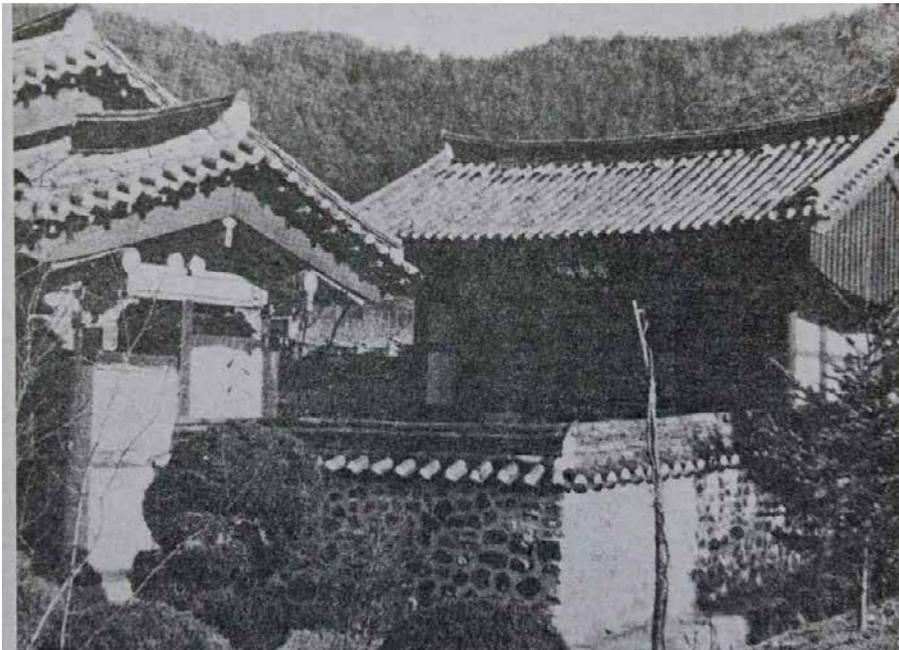
刑) 60을 받았다.

태종때 좌군 통제사를 거쳐 형조판서가 되어 하정사(賀正使)로 명(明)나라에 다녀와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관한성부사(判漢城府事)에 이르러 1422년(세종4) 죽었다. 일찍 명나라에 건너가 옥하관(玉河館)의 건축을 감독하여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바 후에 그의 별세 소식을 듣고 애탄하면서 화공을 시켜 그의 초상을 그려 한 장은 자기 편에 두고 한 장은 후손에 보내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사람됨이 청백하고 절개가 굳었으며 언행이 정중하였다.

\* 참고문헌 : 世宗實錄

## 숭덕사(崇德祠)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방축리

숭덕사(崇德祠)는 구(舊) 입안사(立安祠)의 개칭으로 서기 1885(고종22년)년에 관북유림(關北儒林)의 발의로 창건하여 한말(韓末) 대사헌 임헌회(大司憲 任憲晦) 선생을 모신 곳으로 일제(日帝)의 침략과 6·25 동란으로 정상적이 아니었던 것을 전국의 유림과 국가의 협찬으로 1978년에 연기군 남면 방축리(南面 方丑里)에 원상 복구한 것이 곧 숭덕사와 덕성서원(德星書院)이니 여기에는

7현(7賢)을 모시고 있다.

7현중에 으뜸가는 사람인 임헌희 선생의 호는 전재(全齊) 또는 고산(鼓山)으로 1811년(순조 11)에 천원군 직산면 산음리에서 출생하여 1858년(철종 9)에 경영관(經筵官)에 당선되었으며 이조참판 대사헌(吏曹參判 大司憲)을 거쳤고 육영사업에 전력을 하다 1876년에 세상을 떴으니 정이품(正二品) 자헌대부(資憲大夫) 내부대신(內部大臣)의 벼슬을 받았다.

간재 전우(良齊 田愚) 선생은 1841년(헌종 7)에 전주 청석교(靑石橋)에서 출생하여 전재(全齊)선생 밑에서 공부를 해서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정독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강원도사(江原都事)를 지낸 후 도학(道學)에 전력을 하다 1922년에 세상을 떠났다. 불궤재(不匱齋) 이재구(李載九) 선생은 1836년(헌종 2)에 연기에서 출생 전재(全齊)임 선생 밑에서 수학한 후 도학(道學)에 전력함과 동시에 14년간을 경적탐구(經籍擇求)와 육영사업에 종사했다.

병암 김준영(炳庵 金駿榮) 선생은 1842(헌종 8) 공주현암(公州玄岩)에서 출생하여 명도주의(明道主義)에 입각하여 간재(良齊) 선생에게 사사(師私) 하였다.

성암 이유흥(誠庵 李裕興) 선생은 1859년(철종 10)에 천안 증자동(曾子洞)에서 출생하니 성경효우(誠敬孝友)를 신조로 하면서 병암(炳庵) 김선생한테서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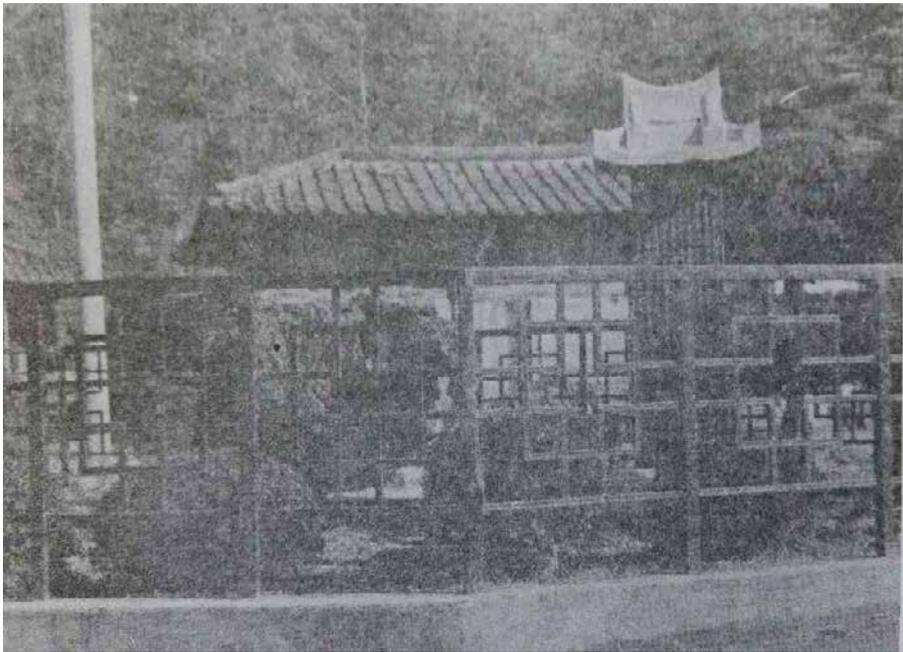
노암 조홍순(魯庵 趙弘淳) 선생은 1860년 (철종 11) 충북 진천 성암 유동(鎬洞)에서 탄생하였고 문예에 능통하였는데 평생을 간

재선생에게 배웠다.

경석 임헌찬(敬石 任憲瓚)선생은 1876년(고종 13) 연기맹곡(燕岐孟谷)에서 출생했는데 그는 문예(文藝)에 조예가 깊었고 율곡 전집(栗谷 全集)을 탐독했었고 간재(艮齋) 선생 문하에서 배우면서 예절과 청빈을 실천했다.

\* 참고문헌 : 德星書院記

## 자 교 암 (慈教岩)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조치원읍 봉산동

조치원읍 봉산동 호계(虎溪) 마을에 큰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모양의 큰 바위가 있으니 자교암으로 불리우고 있다. 자교암으로 불리우고 학자 이재구(李載九) 선생의 집앞에 있는 바위로 어머니 안동김씨(安東金氏)가 아들의 종아리를 쳐가면서 공부를 시킨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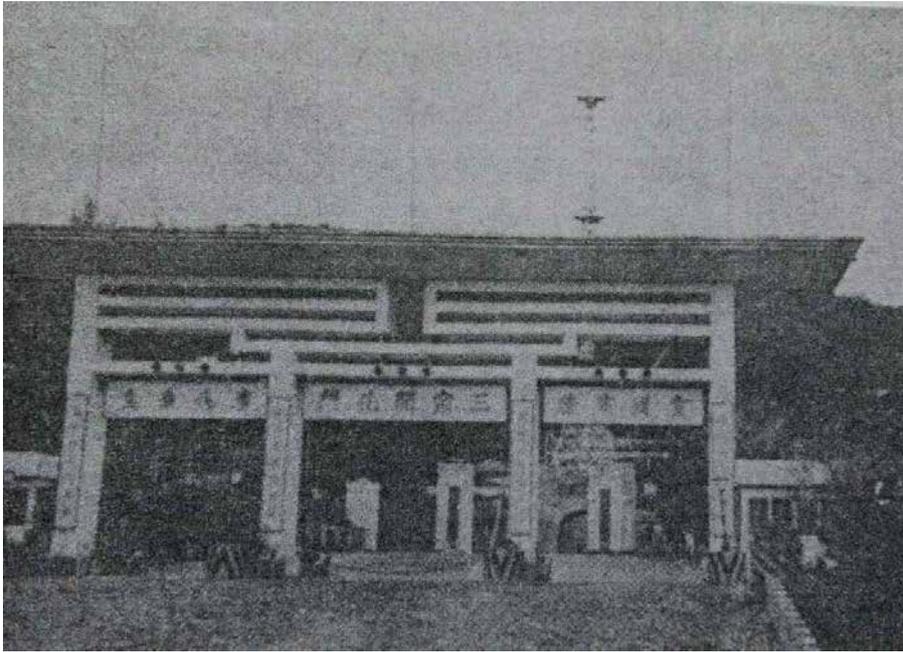
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효성이 지극하여 공이 8세때

어머니가 병고에서 위독하게 되자 이 바위를 깨끗하게 하고 엄동설한에도 목욕재계 하고 어머니의 병세가 쾌유하기를 축원한바 신명이 크게 감동하여 병이 회복되었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묘소를 지성으로 찾아 뵈었으니 향리에서 이효자(李孝子)라고 칭찬하였다.

공이 18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간 초막에서 묘를 모셨으니 어머니의 가르치심이었다고 일생을 잊지 않기위한 정성으로 자교암(慈教岩:全齊 先生의 친필)이라 새기고 추모하므로 대사헌(大司憲) 선생이 그 효를 찬양하여 호를 불궤재(不匱齊)라고 내려준 것은 공의 효가 투철함이었으니 유림(儒林)에서는 국가의 협찬으로 비석과 아울러 정화하여 효행의 유물로 남아있다.

\* 참고문헌 : 碑文

## 금강대도(金剛大道)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금남면 금천리

금남면 금천리에 넓게 자리잡고 있는 금강대도 본원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으며, 심신을 수련하며, 가정에서 효(孝)하고 우애가 깊으며,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아서, 유·불·선(儒佛仙)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제 1세 도주(道主) 이사암(李士庵)은 1874년 5월 19일 강원

도 통천군 답전면 포항리에서 출생했다.

도주(道主)는 남쪽 지방으로 포교하기 위하여 1909년 4월 8일에 충남 논산군 두마면 백암동으로 가니, 그해가 한일합방이된 국치의 해였다.

도주는 허무러지는 윤리와 도덕을 밝히고 배달민족의 우수성을 고취하였으며 유(儒)의 오륜삼강(五倫三綱)과 불(佛)의 대자대비와 선(仙)의 깨끗함을 합친 금강(金剛:男)과 연화(蓮花:女)의 법문을 널리 설법하기에 이르러 신도수는 수만에 달하였다.

이렇듯 날로 신도들이 늘어나자 일본 관헌들의 주목을 받게되어 감시를 당하였으나, 도주는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교화사업에 더욱 정진하였으며, 그들은 이를 제지(制止)하기 위하여 연행하고 때로는 감금을 하기도 했다.

1918년 고종황제가 돌아가셨을때와 1926년 3월 순종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더불어 비통에 잠겨 3년 상복을 입었다.

그후 1923년 12월에 다시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金南面 金川里)에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이곳에 삼종대성전(三宗大聖殿)을 봉건하여 성위(聖位)를 봉안하고 대강당(大講堂)을 지어 영재양성(英才養成)에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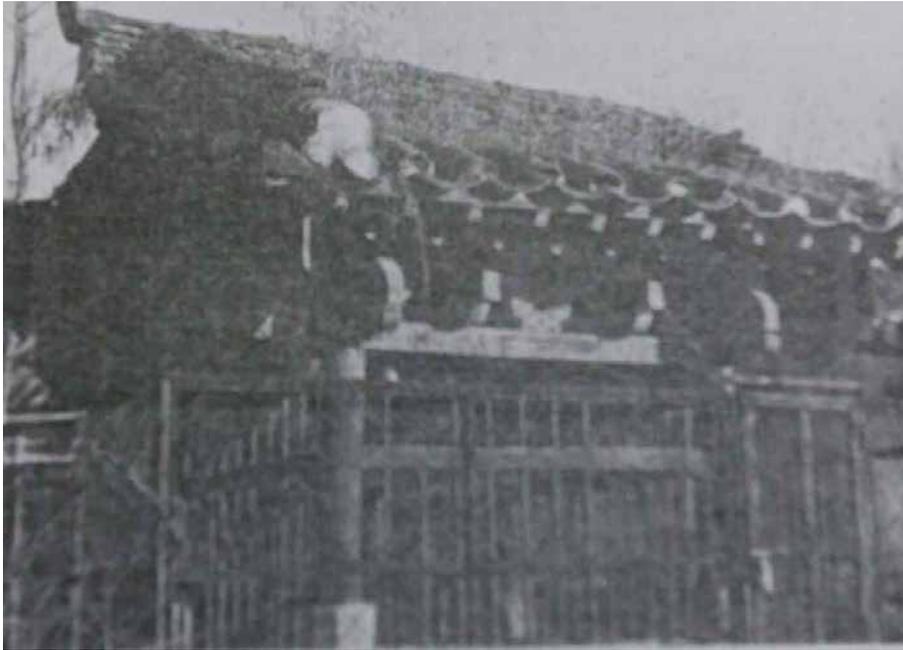
1934년 3월에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전 도청앞 광장에서 대강연회를 가졌으니 왜병의 강제 해산을 당하는 등 무수한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파란만장의 역경속에서 애국 애족의 정신을 드높이다 1세주 이사암은 11월 2일에 세상을 떠났다.

후에 2세도주(二世道主) 이청학(李靑鶴) 3세도주(三世道主) 이일규(李一珪)에 이르렀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 오충신(五忠臣)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동면 예양리

박천봉(朴天鵬)은 밀양인으로 고려 찬성(贊成) 박강생(朴剛生)의 후손이며 군수 박령의 아들로 1545년 (인종 1년)에 경기도 양주(楊州)에서 출생했다. 그의 나이 아홉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박령을 잃고 열세살에 이르러서는 어머니 허씨(許氏)를 잃었다. 어릴때부터 조헌(趙憲)에게서 수학을 했고 27세에는 무과(武科) 제1과(第1科)에 급제하여 한성훈련원 참군(參軍)이 되었다.

천봉 나이 48세 되던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천봉은 조현의 의병 모집에 응하여 종사관이 되었다.

당시 큰 아들 원겸의 나이는 11세였고 인겸은 7세 막내 의겸은 2세였다. 천봉은 나이 어린 네 아들과 젊은 아내를 연기(燕岐)에 두고 전지(戰地)로 떠나야 했다. 천봉은 오로지 애국 충성으로 적을 무찌르는 신하로서의 뚝뚝한 길을 간다는 일념뿐이었다.

그의 아내 황씨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진중으로 떠나는 심경은 “몸을 버려 국가를 위하겠다”는 망신순국(忘身殉國)의 굳은 결의를 보이는 한편 연기땅에 둔 네 아들과 아내를 걱정하는 글을 보냈으니, 어린 자식들에게 「추악한 도적(왜적)을 집으로 들여보내지 말라!」는 격하고 엄한 훈계와는 달리 「이 어려운 때에 계룡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 어린 자식들을 무사하도록 하라!」는 걱정스런 글을 보냈다.

아내 황씨는 야음을 타서 연기땅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서면(西面)에서 금강까지는 자그만치 40여리.

전란으로 슬렁거리는 연기땅서 계룡산 심곡으로 빠지는 길은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큰 보에 두 살난 막내 의겸을 싸서 안고 또 세아들의 손과 손을 잡고 서면을 빠져나온 황씨는 금강은 건넜으나 불행하게도 영교소(營校所)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그 후의 사실은 충의록에 기록은 없으나 자식과 황씨의 고생은 가히 짐작 할 수 있으리라.

천봉의 아내 황씨는 관은 장수(長水)요 황달효(黃達孝)의 딸로 황달효는 이조 초의 유명한 문신(文臣) 익성공(翼成公) 황희

(黃喜)의 후예이다.

재상의 후예 황달효의 피를 이어받은 천봉의 아내 황씨는 그런 전란 속에서도 네 자식들을 보호 성장시키는데 남다른 정성을 들였다.

“계룡산 깊숙한 곳에 숨어 난을 피하라!”는 간곡한 천봉의 편지는 아내 황씨와의 마지막 교류였는지도 모른다.

중봉 조현과 승병(僧兵) 영규의 의병이 청주 전투에서 왜병을 쳐부수고 퇴진할 때, 천봉은 유시(流失 · 빛나가는 화살)를 맞고 전사했다.

천봉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애석히 여긴 사람은 중봉과 여러 의사였지만 아내 황씨의 슬픔에야 비할 수 있겠는가.

중봉은 천봉을 잃은 슬픔을 큰 그릇을 잃은 슬픔에 비유했고, 광승인(郭崇仁)은 “항상 국가를 위하여 죽겠노라더니 결국 소원 성취 하였구료!” 하고 크게 통곡을 했다. 천봉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아내 황씨는 난이 끝난 후에도 초혼상(招魂葬)을 지낸 지아비의 녀 때문에 괴로워 했다.

1636년 2월 2일 청태종(淸太宗)은 대군을 이끌고 종속국(從屬國)이 되길 거부했던 조선으로 쳐들어 왔다. 이때가 인조(仁祖) 14년 임진왜란이 일어난지 40년 안팎이었으니 왜군의 침입으로 전화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당하는 민족의 일대 수난이었다.

청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순식간에 서울로 육박하게 되었고 인조는 서울을 버리고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하는 도리 밖에

없었다.

당시 천봉의 장자 원겸은 55세로 벼슬은 판관(判官)이었고 둘째인 인겸은 53세, (무과(武科)에 급제 했다고만 기록되었음) 셋째 예겸은 51세로 검정에 막내 의겸은 46세로 군자감 주부(主簿)였으니 모두 무과에 급제 벼슬을 했던 것이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仁祖)는 각지에 교서(敎書)를 내려 원군(援軍)을 청하였다.

당시 지금의 광주(廣州) 지역에서 청군과 싸웠던 충청병사(忠淸兵使) 이의배(李義培)라는 이가 있었다.

이의배의 자(字)는 의백(宜伯)이며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1599년 무과(武科)에 급제 1623년 인조방정(仁祖反正) 당시 공을 세워 정사공신(精社功臣) 3등이 되었던 사람이다.

이의배는 천봉의 자식들이 효성이 지극하고 용감하다는 얘길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죽산산성(竹山山城 : 지금의 광주)에서 진을 치고 청(淸)의 배후를 공격했던 이의배는 천봉의 네 아들에게 그들을 조처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들 네 형제는 서한을 받고 기꺼이 응하여 병사(兵使)의 종사관(從事官)이 되니 그때가 1636년 12월 14일이었다. 그들 네 형제의 소망은 임진년에 죽어간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길이었으며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친 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따르는 길 뿐이었다.

이러한 그를 조헌(趙憲)의 5세손 조혁근은 오충실기(五忠實記)

에서 4형제의 끝없는 원은 구천지하(九泉地下)에서 5부자가 상면하는 길이라고 했고, 이의배는 이들 네 형제의 용기를 높이 샀다고 했으며 이들 네형제는 휘기를 높이들고 수십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수백의 호병(胡兵)과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병자(兵子) 12월말, 이의배가 이끄는 죽산산성(竹山山城) 군사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운명을 슬퍼하여 밤새 통곡했다.

이때 그들 네 형제는 천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나섰으니 그들을 따르는 군사는 수십명에 불과했다. 충실기에는 “이들 네 형제가 적진으로 돌진하다가 적병에게 포위되어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과 돌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 했다” 고 되어 있다.

임·병(任丙) 양난을 통해서 모두 순절한 이들 5충신의 순절과 충의정신이 때마침 이 고장을 순찰중인 한 암행어사에 의해서 근정에 알려지게 된 것은 1747년 (영조 23) 8월이었다.

자아(自我)를 버리고 오로지 국가 민족을 위하여 적진에 뛰어 들어 병자호란때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호병과 싸운 네 아들의 실기를 왕에 보고하여 정려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것이 5충신문이다.

이 5충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연기군 동면 예양리를 충효동(忠孝洞)이라 일컬었던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 五忠臣錄

韓國의 美 (황호근)

燕岐邑誌

韓國通史 (한치근)

韓國의 人脈 (이규대)

韓國의 人間像

密陽朴氏世譜

## 충절의 선비 김승로 (金承露)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청남리

충정공 김승로는 강릉인이다.

김승로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즐겨 읽어서 그들 또래에서는 누구도 그들 따를 수 없을 만큼 총명하기로 이름났다.

그리하여 고려말의 포은 정몽주(포은 鄭夢周)와 목은 이색 (牧隱·李穡)까지도 김승로의 뛰어난 학문과 사람 됨됨이를 알고 ,고려의 앞날에 큰 인물이 될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그

후 벼슬길에 올라서는 관상감(觀象監) 좌정승(左政承)까지 올랐으며 한때는 한적한 전원에서 심신을 수양하면서 학문을 익히고 자연과 더불어 목가적(牧歌的) 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그러한 중에 임금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다시 일해 달라는 간곡한 분부를 받들어, 말은바 직무에 충실한 무렵 뜻하지 않은 몽고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

어쩔수 없이 그는 임금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과 남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다.

왕과 여러 신하들이 피난행렬이 행정리 (오늘의 천원군)의 차령고개에 이르러 피난길을 공주(公州) 방면이나 아니면 조치원(鳥致院) 이냐는 두 갈래 길에서 망서려야만 했다.

정말 진퇴양란이었다.

이렇듯 신하들이 당황할 때 왕은 어느쪽을 택하겠느냐고 묻자. 김승로는 차령 고개를 넘어 공주로 행하지 말고, 조치원 방면으로 60여 거리를 남하하자고 했다. 조치원 쪽은 넓은 평야가 있어서 군량미와 각지에 분산된 군사를 수습하기에 용이하고, 나아가는 근왕병을 모아서 몽고군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김승로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왕과 그 일행은 조치원 방면으로 피난 길을 계속했다.

얼마가 지나고 다시 무스골과 개티고개에 이르자 모두들 기진맥진 하였다.

밤 낮의 피난 길에 지칠대로 지쳤고 백성들까지도 몽고군에 시달렸다.

가도 가도 한이 없는 첩첩 산속만 보였지 평야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모두들 당황했고 여러 신하들은 김승로의 처사에 의아하면서 갖가지 상반된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왕이 서서히 말문을 열기를

“저 앞산 산정(지금의 국사봉이라고 함) 올라가 지형과 위치를 살펴보고 혹시 넓은 들이 없나를 확인하라!”

하고 지시를 하자, 이에 곧 어떤 신하가 산 봉우리에 올라갔을 때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안개와 구름으로 인하여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내려오고 말았다. 이에 모든 사람들은 더욱 김승로를 의심하면서 계속 얼마를 남하하다가 벼루재 고개(오늘의 전동역 고개)에 이르면서 김승로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하 한사람이 역모(逆謀)를 꾀하여 김승로를 제거하려 했다.

이렇듯 모의를 하는 일부 신하들은 왕에게 지금 이 피난길은 몽고군이 진을 치고 있는 적진으로 가는 길이라고 제멋대로 일러바치자, 왕 역시 의아하던 차에 그들 역신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칼거리(전동역에서 1km지점)에 이르자 김승로를 역적으로 뒤짚어 썩워서 극형인 목에 칼을 걸도록 왕은 준엄한 명을 내렸다. 허나 김승로는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구차하게 변경하지 않고, 언젠가는 자신의 결백을 알으리라 믿으면서 나라에 대한 일편단심 충성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대감 김승로는 역신들로 해서 참형(斬刑)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나라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10여리를 안가서 넓은

평야가 나타나오니 그곳에서 군량미를 구하고 분산된 군기와 군인을 수습하여 대반격을 가하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는

“임금님께서서는 역신들의 불장난으로 잘못 판단 하시와 미신(微臣)의 목을 참하셨다가 얼마 안가서 충성스런 신하를 죽였다고 후회하시거나 애석하지는 마옵소서”하는 마지막 유언을 두고 달갑게 칼을 받았다.

김승로를 처형 시키고 10여리를 남쪽으로 내려가니 과연 넓은 들(조치원)이 눈앞에 들어왔다.

왕은 그곳에서 군량과 분산된 군사들을 재정비 하고, 침략과 몽고군에 대반격을 시작하였다. 왕은 충신을 참형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처치현장인 붉은대기(그당시의 지명)에서 김승로의 시신을 수습하고 대성 통곡을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후 왕은 고려 국장의 절차를 따라 상여로 운구하는 도중 갑자기 일진광풍이 불어닥쳐 영전 공포(功布)가 날려 청람리 큰 마을 뒷산에 떨어지니, 그곳에 장사를 치루었고.

전에 지형을 살펴보았던 봉우리를 국사봉(國師峰)이란 이름을 지어 부르게 했다.

김승로는 살아 생전에 임금을 섬길제 충성으로 임하였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도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이 죽어가는 순간까지 나라에 대한 충성을 잃지 않았다.

난을 피해서 남하 하는 임금의 행렬에서 분열 되었던 역신들의 중론을 수습하며 생명을 바쳐 옳은 판단으로 임금을 도운 성실한 충신이었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高麗野談, 碑文

## 사육신 박팽년 (朴彭年)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관정리

박팽년은 1417년 (태종17)에 태어나 1434년(세종16)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할 때까지 부단히 학문에 정전하여 성실하게 인간 수업을 닦아왔다.

더구나 과거 급제후 집현전 학사로 발탁되어 성삼문(成三文)과 더불어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니, 당시 젊고 덕이 있어 장래가 총망되는 선비에게 내려주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영광을 얻기로 했

다.

그러나 세종이 돌아가시고 문종이 뒤를 이어 단종이 들어서면서 나라는 어지러운 어둠에 말렸다. 야심이 만만한 수양대군은 그가 지니고 있는 저의를 들어내어 김종서 황인보 등을 격살하고 영상직에 올라 정권을 장악했다.

이무렵 박팽년은 외방으로 나와 고향인 충청도 관찰사(觀察使)로 있었다. 그는 관찰사로 있으면서 세조에게 올리는 공문서에 신(臣)자 대신에 거(巨)자를 써서 올리기도 했다한다.

1456년 박팽년은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어 서울에 가면서부터 성상문,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과 단종의 복위(復位)운동을 전개했으나 김질은 장인(丈人) 정창손에게 설득되어 밀고(密告)하므로써 체포되었다.

한편 세조(世祖)는 그의 재능을 아껴서 박팽년을 잘 달래면서 신하(臣下)가 되기를 간청했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자 잔인한 고문끝에 사형을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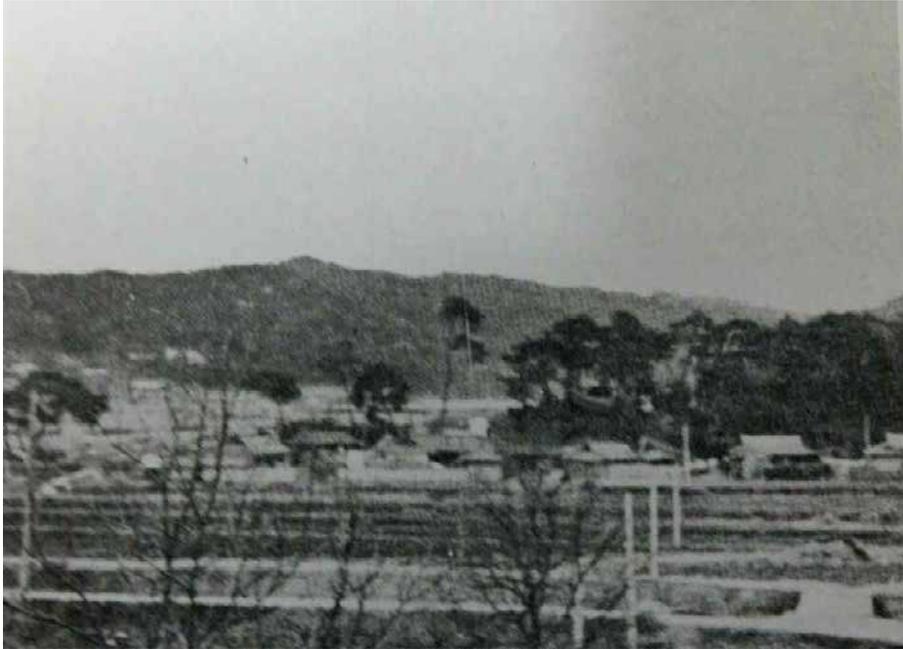
박팽년은 과천 민절서원(愍節書院)과 홍주 노운성원(魯雲書院)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대전시 가양동에 선생의 유허비와 비각(장절정:壯節亭)이 있다.

박팽년선생의 선조들이 관정리 대부리(大夫里) 마을에서 10대 이상 대대로 살아왔으며 아버지 박중림(朴中林)의 묘는 박동(朴洞: 현재의 관정리 박동부락)에 있으나 그 위치는 알 수 없고 할아버지 박안생(朴安生)의 묘는 중송동(中松洞: 현재의 송정리 중소골 부락)에 있다고 전성지 [全城誌] 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

로 미루어 볼 때 박팽년 선생이 태어나서 자란곳이 연기군 전의면 관  
정리 지역으로 추측되며 앞으로 연구해 볼만한 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全城誌, 燕岐誌

## 생육신 성담수 (成聃壽)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성담수(成聃壽)는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여 남훈온과 더불어 생육신의 한사람이다.

출생의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며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승문 원교리 성희(成熿)의 아들로 사육신(死六臣)의 한사람인 성삼문(成三問)의 재종이다.

원래 이 집안은 대대로 충성과 절개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

은 집안으로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가르침에 추호의 어김이 없었고 또한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세종(世宗) 32년 (서기 1450년)에 진사(進仕)가 되고 승문원 교리가 되었다. 세종에서부터 세조(世祖)에 이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왕위 찬탈(篡奪)의 바로 그 시기였다,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성군(聖君)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이르는 불멸(不滅)의 업적을 남긴 세종이 승하(昇遐)하시고 아들 문종(文宗)이 대를 이었으나 재위(在位) 2년 3월만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그도 승하하였다.

이러한 급변한 상황 속에 불과 12세의 어린 왕자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니 그는 단종(端宗)이었다. 그런데 문종의 다음 아우요,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首端大君)이 왕위에 욕심을 품은 나머지 권람, 한명희, 정인지 등과 모사하여 김종서, 황인보, 등 수많은 정치인, 학자, 무인들을 죽였으나, 이들 충신들이 보여준 충절의 사상은 우리 민족의 뜨거운 핏줄에 연면히 흘러 내려오는 보배로움이 되고 있다.

한편 성담수의 아버지 회(熈)는 사육신의 주동 인물격인 성삼문의 당숙으로 단종 복위 모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기에 서울에서부터 차그만치 3백리 밖으로 유배길에 오르니 곳은 경상도 김해였다.

당시 김질(金質)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거사 계획이 미리 탄로나 성삼문등 사육신 모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을 받았으나 다행히 한사람도 자신들의 뜻한 바를 굽히지 않았음은 그들이 지니

고 있는 애국 충정이 얼마나 강인했는가를 엿볼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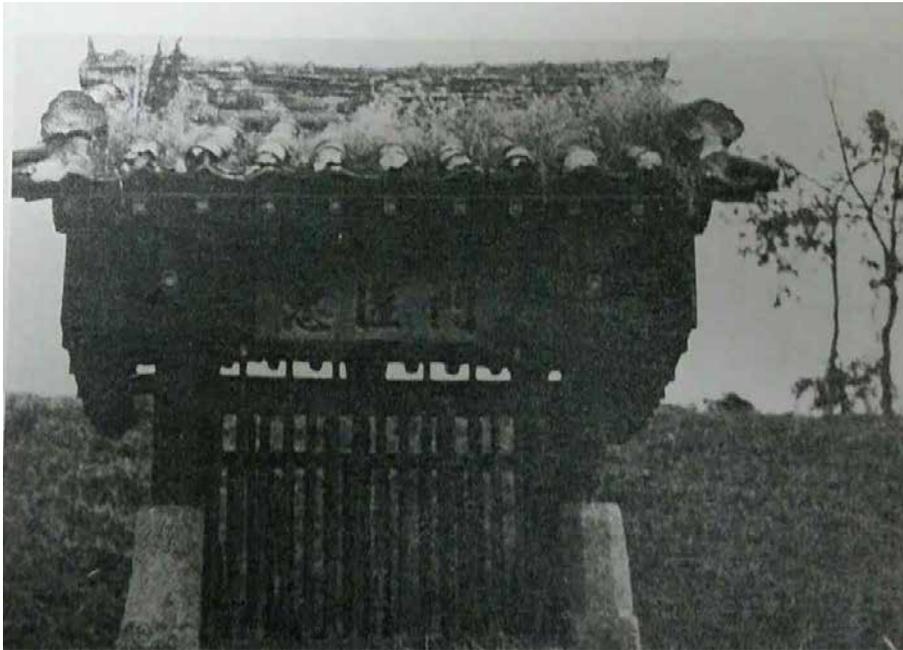
사육신 못잖게 성희(成熺)도 모진 고문에 시달려 뼈를 깎아내는 아픔을 겪었음을 물론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은 “죽은 성삼문보다 성희가 더욱 어려운 생애를 살았다.”하고 아낌없이 찬사를 보냈다.

또 담수는 희(熺)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가 유배된 곳을 뒤따라 가서 새파란 몸으로서 아버지가 겪는 온갖 고초를 같이 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보살폈으니 자손(子孫)도 두지 않고 오로지 충절의 의(義)를 위하여 살았으며 유배(流配) 3년의 기간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충남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達田里)에 은거 하면서 파란 만장한 일생을 살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성담수를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추앙 하였다.

참고문헌 : 誌狀輯略

## 충신 홍직(洪植)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서정리

선생은 1570년(선조3) 출생하여 1602년 (선조 35)에 무과(武科)에 장원하였으며 여섯 고을을 지나면서도 칭백하기로 명성이 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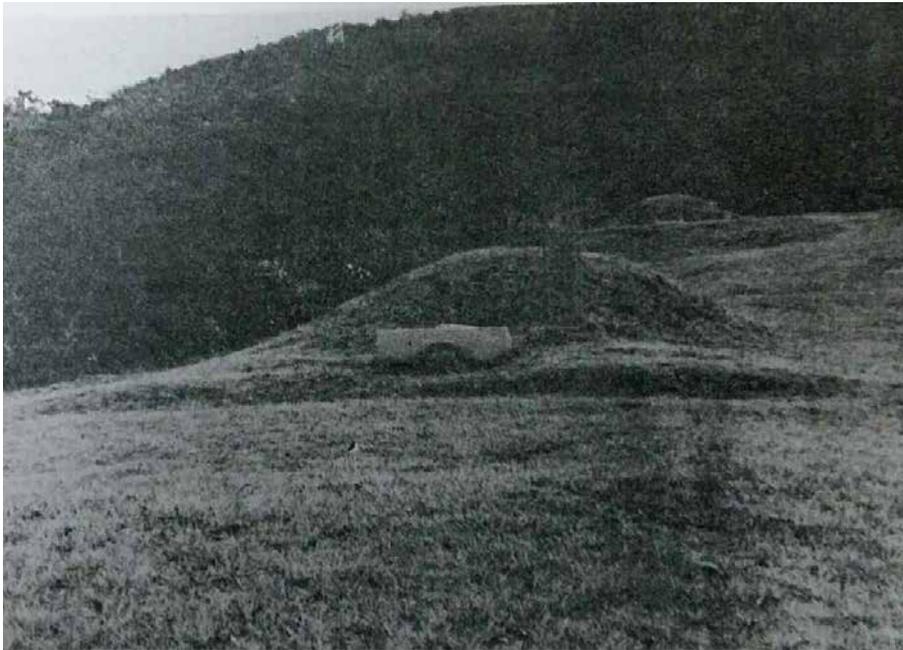
여러번 포상을 받았고 여러 고을에서 기한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권유로 각 지방에서 1년씩 더 지냈으며, 주민들이 공덕비를 세워 그 미덕을 칭송하였다.

1624년(인조2) 이괄의 난(李适의 亂)엔 3등 현령으로 원사(元師) 장만(張晩)을 도와 난을 진압하여 1등 공신이 되었다. 는 것이 장만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1627년(인조5) 정유호란 때에는 순안 현령으로 있으면서 적을 잡아 공을 세워 특별히 통정(通政)에 올랐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는 정방산성에 입성하여 용전중초관(哨官) 박종산등이 공에게 탄곳으로 퇴하길 종용하자 공은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여 마땅히 한 길목이라도 지킬 것이고 만일 일이 잘못되면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말과 함께 물려오는 적을 맞아 싸우다 13발의 화살을 맞고 운명하였으니 때는 1637년(인조 15) 1월 7일 토산현 남산이었다. 공이 순절한 사실은 황엽이 전하여 서몽양의 「문성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공의 충절과 의열의 빛이 없다가 1713년(숙종 39)에 관직을 증직하고 이곳 전의면 신정리에 충신문을 세웠다.

\* 참고문헌 : 南陽大譜, 墓碑銘

## 학당골 김 휴(金 休)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본(本)이 안동(安東)으로 서기 1350년 (고려충정 2) 고향에서 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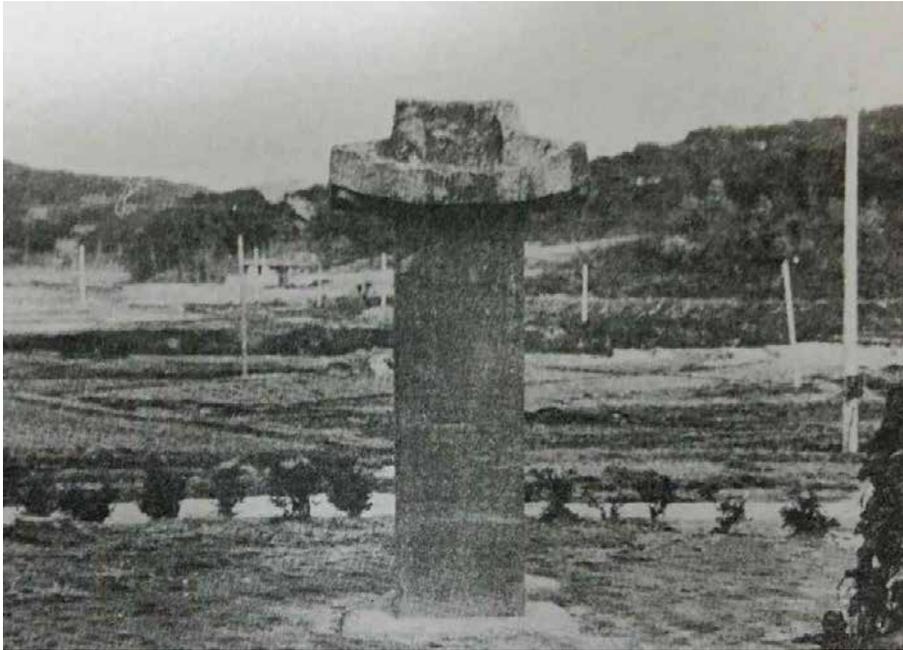
정몽주(鄭夢周) 선생의 문하생(門下生)으로 고려 공민왕때 검교근시(檢校近侍)라는 벼슬에 있었고 고려가 실각되자 이태조 등 국시 호군(護軍)에 명을 받았으나 연로하신 아버지(고려공조전서 성목: 成牧)을 모시고자 송도(松都)에서 여러 신하들과 통곡으

로 작별하고 오늘의 전의(全義) 운주산 아래 병거지(屏居地)를 정하여 은거하자 태조가 하선검교(嘉善檢校) 한성좌윤(漢城左尹)이라는 벼슬을 내려 불렀으나 그는 끝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초야(草野)에 묻혀 있으면서 학문을 더욱 빛나게 닦아 그의 문하생으로 증효자를 많이 배출하였으니 그의 덕망과 지조가 훌륭하다 하여 유림명인(儒林名人) 들이 유허비를 세웠고 운주산 아래서 살았으니 지금의 전동면 미곡리를 그의 호(號)를 따라 학당리(學堂里)라 일컬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참고문헌 : 碑文, 族譜

## 한말 거사 진시책(陳時策)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진시책의 본은 여양(驪陽)이며 1831년 7월 7일 금남면 반곡리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재주가 좋아서 경서, 사기에 능통하고 역학(易學)에 더욱 통달하니 시인(詩人)들이 동방석학(東方碩學)이라 격찬을 했고, 한말에 국운이 기울자 당시 보국판서인 서상우(徐相雨)가 고종황제에게 진시책을 이른다 역학에 밝고 시작(詩作)에 통달함이 공명(孔明)과 같은 훌륭한 인

재라고 추천을 했다.

이에 고종황제는 1901년 (광무 5년)에 그를 불렀고 다음 해에 다시 불러들여 국사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여 국정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한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작위를 내렸으나 그는 국난을 순탄하게 타개하지 못함을 통탄한 나머지 작위를 사퇴하자 그의 고상한 정신에 황제는 재삼 아낌없이 칭찬을 하면서 거사(居士)라 호칭하고 하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주었다.

\* 참고문헌 : 碑文

## 충신 김제정(金濟鼎)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신흥리(생촌부락)

김제정의 자는 첨중(僉中)이요 본은 안동(安東)으로 서기 1578년(선조 11) 전동면 전동면 양곡리에 태어났다.

공은 1605년 무과에 급제하여 금부직(禁府職)에 있다가 1624년 의주 인산방어사(防禦使)로 재직시 1627년 (인조5) 강홍립의 난(姜弘立의 亂)이 발생하므로 당시 의주부윤(義州府尹) 이완(李完) 남이흥(南以興)등과 더불어 교전중 적장 강로(適將姜廬)의 세력이 강하므로 이완이 전사하고도 용전을 거듭하였으나 마침 화살이 쉴새없이 날아오니 단신의 몸으로 대검을 휘두르며 적의 진중에 진격하여 적을 물리치다가 전사했으니 1774년(영조50년)이었다. 우승지 조영진(趙英鎭)이 상소하여 인묘조(仁廟朝)에 왕이 몸소 치제문(致祭文·신하에게 내리는 제문)을 내리고 제전(祭田)을 내려 연묘와 정려를 짓도록 했다.

그러나 종세(宗勢)가 여의치 못하여 정려와 영묘를 건립하지 못하고 현판만 보관중이다.

\* 참고문헌 :懸板, 族譜

## 항일투사 성기운(成璣運)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선생은 본관이 창녕이고 대제학 성석용의 16세 손이자 한말대유학자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門人)이다.

어릴때부터 총명 단정하였고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고을은 물론 전국적인 유학자로 이름이 높았다.

1904년 한일 합방이 되어 일본이 무단 정치를 시작하여 조선 총독부는 민적령을 내려 호적을 만들기 시작하자 전국의 선비들은 이

를 반대하여 물끓듯 하였다.

특히 선생은 조세, 부역 등 각종 일들을 반대하니 일제의 경찰들이 1912년 5월 22일부터 10여일동안 구속하여 갖은 고문을 다 하였으나 끝내 호적을 하지 않았다.

일반경찰이 갖은 협박을 해도 선생은 태연히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은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어찌 너희들 호적으로 고칠 수 있겠는가 나는 대한 유민이다” 하고 크게 꾸짖었다 하며, 일본 경찰들이 음식을 권하니 선생은 “원수들인 너희와 말도 하기 싫은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하며 물도 마시지 않으니 일경들이 경탄하였다.

구속한지 15일이 지나자 선생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석방하였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 “지팡이는 필요없다”하여 꼴꼴이 걸어서 나왔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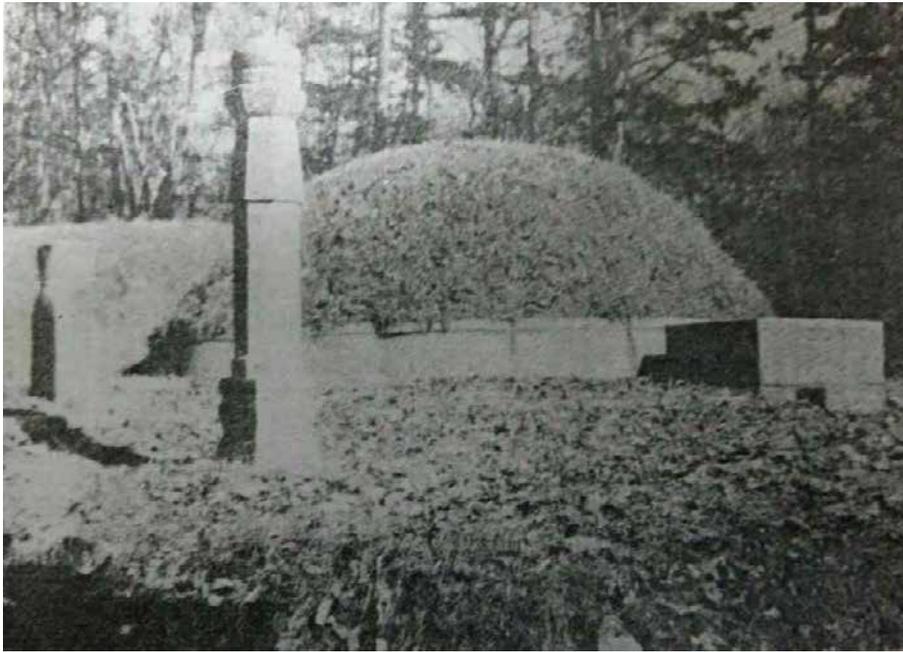
선생은 끝내 호적을 고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름 위에는 반드시 대한 유민이라고 쓸 만큼 민족 정신이 투철하고 고고한 철의로 일제에 항거 하였다 한다.

그후 선생은 1953년 충현서원장을 지냈으며, 1956년 8월 5일 80세로 돌아가셨다.

1972년 문인과 고을 유림들이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에 사우(병산사:屏山祠)를 짓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그곳에는 선생이 남긴 문집과 목판(木板)이 보관되어 있다.

\* 참고문헌 : 郡誌, 族譜

## 애국지사 오강표(吳剛杓)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갈운리

오강표는 보성(寶城) 사람으로 1843년 (헌종 9년) 공주군 사곡면 율리 도덕동에서 보산군 자경(子慶)의 후손으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바르고 의(義)를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친상을 당했을 때도 끈을 절대로 풀러본 일이없이 3년상을 마쳤으며, 스승을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했고 친구들 사궐에 있어서도 예절을 행하는등 충의의 맘씨가 남달리 강하고 뛰

어났었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시문(詩文)은 수편에 지나지 않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온 시귀(詩句)로서 시 편편마다 애국이오  
애족이오 애향심에 가득차 있어 모든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그의 시 귀절마다에는 주권을 찾으려는 민족의 절규가 담겨 있고  
때로는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한 것도 있다.

오강표의 한문속에는 충의(忠義)가 무엇인가를 섬세하게 갈파  
한 철학과 사상이 숨어 있고 애국 충정이 심어있으니 그는 고산(鼓  
山) 임헌회(任憲梅)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조약이 일본측의 강요로 체결되자 오  
강표는 “ 신자(臣子)가 되어 나라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으니 어  
찌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하고 갈파하면서 「오적(五賊)을 토주  
(討走)케 해야 한다.」 는 상소를 올리고 청나라 상인으로부터 아  
편을 사서 명륜당(明倫堂)에 들어가 대성통곡을 한 뒤에 자결하  
고자 약을 먹었으나 사경에서 깨어났다.

이러한 오강표의 행동에 의아심을 갖는 혹자는 그를 칭하여 광인  
(狂人)이라 경멸하기도 했다.

그후 오강표는 토적(討賊)의 글을 여러번 지었고, 한때 명강산  
(明岡山)에 들어가 은거생활을 하였고, 1910년 한일합방의 소식  
이 전해지자 절명시를 지어 선산(先山)과 그의 스승 임헌회의 묘  
에 고한 뒤에 공주향교(公州鄉校)에 들어가 글을 벽 위에 붙이고  
대성 통곡한 후에 강학루에 올라가 조용히 목을 떼어 죽으니 때는

1910년 음력 10월 16일이었다.

그의 유시(遺詩)인 절명시(絶命詩)에 보면 “비록 살아서 조선땅을 되찾는 것은 어렵다하나 일본사람이 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하고 그의 애국충정을 유감없이 묘사하였으며, 그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우국 충정이 담겨 있으니 “오호라 내 금년 나이 칠순에 이르러 나라가 패하고 임금이 망하는 현실에서 아무런 묘책도 없이 난국을 타개치 못하고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구하지 못했으니 죽음만 같지 못하도다. 어찌 분노와 원한을 참고 왜놈에게 허리를 굽힐 수가 있으랴. 원컨대 우리 2천만 동포는 총궐기 하여 주권을 되찾아야 하느니라. 나는 나라가 패하고 임금이 망하였으니 어찌 내 자신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른바 나는 어디까지나 어찌 조선의 백성이오. 죽어도 이씨 조선의 귀신이라도. 일찌기 공자가 말하기를 못 사람은 성인(成人)하라 하였고 맹자는 의(義)를 취하라 하였으니 흰 머리에 붉은 충성은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고 갈파하였다. 오강표의 죽음에 송암(松庵) 최종화(崔鍾和)는 “초야(草野)의 한 포의(布衣)로 붉은 피 만강(滿腔)하고 애국 충정하는데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기에 이르렀으니 매운 그 마음 선열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다” 하였다.

그는 군사부(君師父)의 윤리와 예절을 행동으로 옮겼고, 남의 속국의 백성이 어디서 사느냐고 개탄하였으며 그의 갖가지 시(詩)는 무이재집(無式齋集)에 잘 담겨 있는데 그의 시는 정열적이면서도 맑고 조용한 것이 특색이거니와, 그의 향사(鄉思)라는 시

를 보면,

-소슬한 가을 바람에 추색(秋色)이 산속에 스며드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고향의 그리움에  
천리 강남 길 기러기 어서 가려므나  
혹시나 다시 찾아드는 너한테서 고향 소식이나 전해주려니  
하늘 저편 반쯤이나 트인 곳에 흰구름 흐르는데  
파초잎 속에서 가을색 머금은 꽃 물고기 접시속에 새맛이 그득한데  
나뭇터 사람들은 금강에서 왔나보다  
구수한 차 끓이는 연기가 실오리처럼  
가늘게 흔들리고  
정적속에는 가득한 정이 흘러넘치네  
하늘 끝 멀리 돌아가는 구름은 저절로 막히는데  
푸른산 한 조각이 석양에 아름답게 빛나네-.

오강표는 그의 학문 속에서 충의의 참 뜻을 충분히 체득한 지사(志士)였기에 일생을 외출기 지(志)로 행했다고 보아야 한다.

더더욱 그가 춘추 7순(1910년)에 한일 합방이란 비운의 소식을 듣고 목을 메어 자결한 것은 그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을 했고, 겨레를 얼마나 심려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주권이 없는 나라는 자아(自我)가 없고 민족이 없이 그 누구도 존재치 않는다는 원칙론에서 대아(大我)에 살아온 오강표.....

우리는 지사 오경표가 지니고 있던 뜻을 배우고 익혀서 애국 애족의 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 단장(單章)을 받았으며, 남면 갈운리에 순절비를 세웠고 조치원읍 침산동 충령탑 앞에 있는 “연기출신 독립 의열명사 승모비”에도 그의 공적이 새겨져 있다.

\* 참고문헌 : 忠淸南道誌

人物韓國史

韓國人物大系

燕岐郡誌

韓國通史

## 한말의 청백리 류인철(柳寅哲)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서면 성제리

선생은 1854년 2월 9일 서면 성제리에서 류건영의 맏아들로 태어나 과산(把山) 홍선생으로부터 수학하여 문예가 뛰어났으며 15세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두동생을 맡아 집안을 이끌어 나갔다.

10리 길이 넘는 곳에까지 가서 먼산 나무를 해다가 겨울을 지냈고 농번기에는 손수 쟁기질까지 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일하다 쉴때는 꼭 책을 읽는 습관을 가졌으며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앞날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을 뿐 아니라 홀로 계신 아버지께 지극한 효성을 다하였다. 근면하고 문예와 학문연구에 몰두하였으며, 그 예로 글씨를 쓸때 붓을 꼭 잡고 정성껏 쓰기에 장정 친구가 붓대를 잡아당겨도 빼앗지 못하였다고 한다.

1888년 5월 17일 명륜당에서 탁과별시문과초시(度科別試文科初試)에 합격하였으며 1890년 12월에 대과에 합격한 후에는 비서원에 근무하면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부인이 별세 하였을 때에도 나라 일이 더 중하다 하며 오지 않았다 한다.

1900년부터 1903년까지 어전회의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비서원승(秘書院承)으로서 승정원 일기의 원초본(原初本)을 작성 이기(移記) 하였다.

1902년 3월에 이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던 무주의 적장산성사고(赤掌山城史庫)의 점검을 하명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살펴본 바 퇴락하였으므로 스스로 보수할 수 없으므로 사실대로 보고한 바, 왕이 말씀하시기를 어찌 전에 사관들은 한마디 아무 말이 없었느냐 하고 군수를 통해 10만냥을 송부해 왔으므로 10개월 만에 6만냥으로 준공하고 나머지 4만냥은 국가에 반환하였다. 이 소식을 들으신 왕은 참으로 가상하다고 치하하셨으며, 공은 충성하고 청렴하므로 청백리(清白吏)라고 칭송하셨다.

1903년 신병으로 낙향하여서 병을 치료하던중, 국내외 정세는 급변하였으며,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와 문맹자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1908년 서면 고복리에 동광학교(東光學校)를 설립하고 직접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측량과등을 두었고 배달가(倍達歌) (-학

도가 라고도 함)를 작사 작곡하였으며 시대에 적합한 천자문을 교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하였다. 집에는 학당을 두고 인근 각처의 젊은 이는 안배운 이가 없었으며 전국이 유럽 학자들과 애국지사의 왕래가 끊일 날이 없었다.

특히 1919년 기미 3·1운동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소 민족의 서러움과 독립 운동을 호소하였으며 애국가와 태극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쳤으며, 왜경의 갖은 협박과 위협을 무릅쓰고 홍일섭과 함께 인근 부락을 동원시켜 일제히 봉화가 울려지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와 같이 선생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관직에서는 송죽 같은 청백리요, 향리에서는 석학 양성의 선구자였다.

\* 참고문헌 : 燕岐誌, 族譜

## 홍보(洪寶) 신도비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동면 명학리

연기군 동면 명학리 1구 원당골 고개마루에 가면 보기 드물게 큰 신도비가 하나 서 있다.

이 비석은 3·4백년 전에 세운 비석으로 돌은 해석(海石)으로 되어있고 글은 이조중기(李朝中期)의 학자이며 병자호란 때는 화의를 극력 반대하며 기초중인 국서를 찢고서 청나라에 잡혀가 심문을 받았으나, 굽히지 않았으므로 그들도 그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돌려보냈다는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이 글을 짓고 당시의 대 서도가로 이름높은 오준(吳竣)이 글을 썼다는데 한층 더 발길을 멈추게 한다.

기록에 남은 것이 별로 없으나 구전되어 오는 바에 따르면 홍대감의 묘를 쓰고 비를 세우기 위하여 수 많은 양민이 부역을 했고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묘비와 신도비의 돌을 운반하기는 미호천과 합강이가로막혀 육운(陸運)은 할 수 없고 경기도 강화쪽에서 서해안을 통해 금강을 타고 이곳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강을 건너 운반했을 것이다.

한편 여기에 잠들고 있는 홍대감은 선조(宣祖) 때부터 인조 때 까지(1583~1641)의 문신(文臣)이며 본은 풍산(豊山)으로 당시 형조좌랑 난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광해군때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금화사별좌(禁火司別座)가 되어 한성부 참군(參軍)에 옹진후(161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을 치르고 나서는 광해군의 난정(亂政)으로 벼슬에 뜻이 없어 고향에 들어가 공부를 하여 후배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1623년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고 광해군이 폐위하자 다시 과거를 보아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성균관의 직원이 되었고 이어 여러 벼슬을 거쳐 1627년(인조5) 원주목사(原州牧使)가 되었다.

이해 이인거(李仁居)가 강원도 횡성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중흥대장(中興大將)이라 하고 관군을 소집하여 그들의 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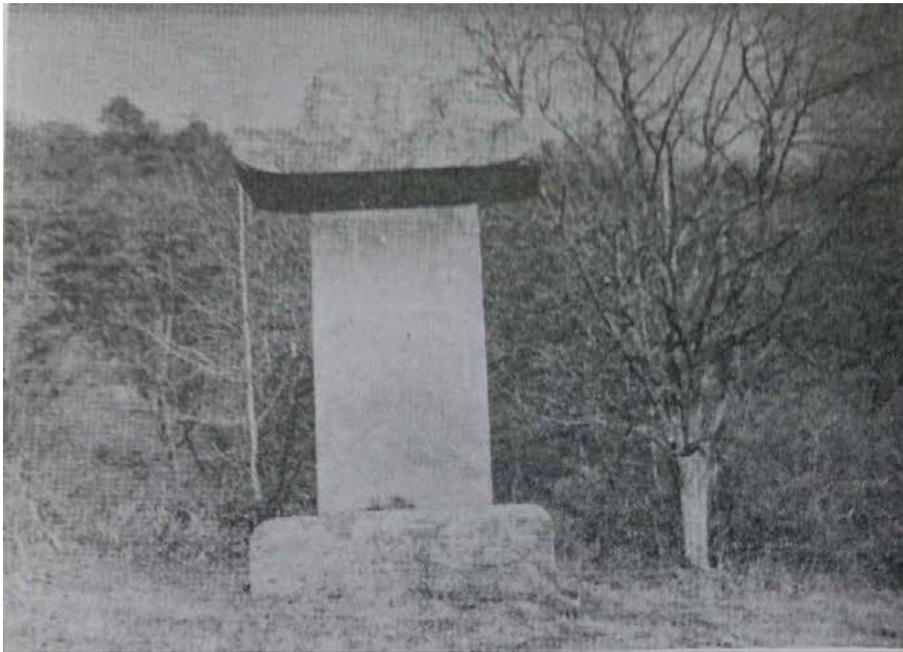
탈취하고 서울을 향해 침공해 왔다. 이에 원주목사 홍보는 뛰어난 지략으로 이인거를 생포하여 서울로 압송하고 반란을 진압시켰다.

인조대왕은 기뻐하며 홍보를 공신 1등으로 책록하고 풍녕군(豊寧君)으로 봉하였다.

처음 인거반란 소식이 조정에 이르자 조정은 물론 백성까지도 들끓어 사태수습에 크게 혼란을 빚어 왔다. 허나 홍보는 전격적으로 수습을 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고 좌찬성에 이르러 죽으니 영의정이 추증(追贈)되었다.

참고문헌 : 族譜, 碑文

## 조계원(趙啓遠) 신도비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송정리

충정공 조계원(趙啓遠)의 본은 양주(楊洲)이며 서기 1592년(선조 25)에 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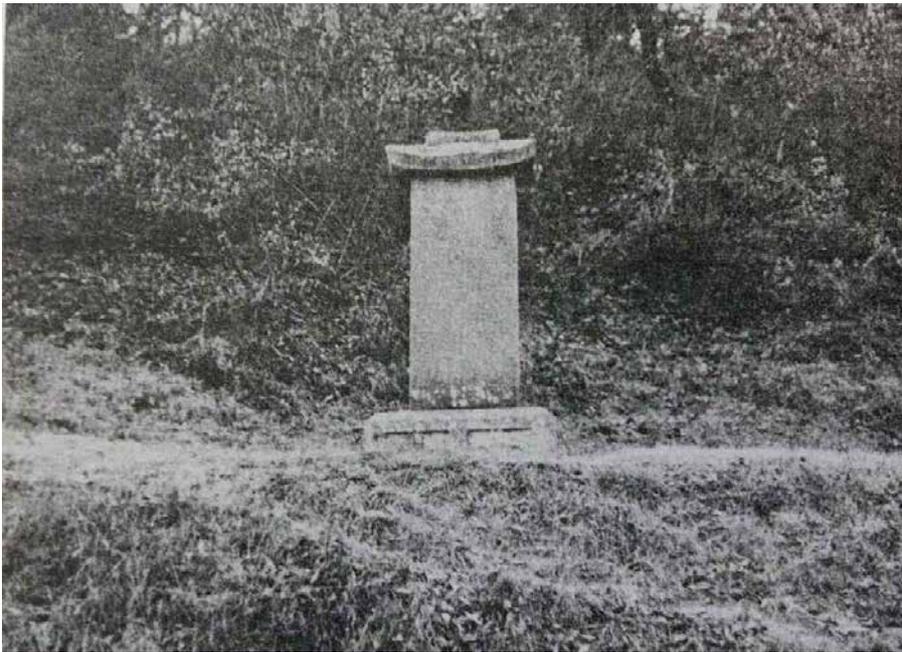
의금부 도사를 거쳐 1628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1631년에 정랑(正郎)에 이르렀다.

1936년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군량 보급을 맡아 보았으며 그 후 장영수찬(掌令修撰)을 역임하고, 수원부사 충청도 관찰사 예조참의승지 등을 역임하다가 1660년(현종 1년)에 함경도 관찰사

로 있었으나 한발로 큰 타격을 입자 영남지방의 식량을 급히 반출케 하는등의 큰 일을 함으로써 1664년(현종 5)에 개성부 유수를 지내고 그 뒤에는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러는 사직을 하여 보령에서 은거생활을 했는데, 그의 신도비는 경부선 국도에서 3km 정도 떨어진 전동면 송정리(松亭里) 안골에 높이 3.5m, 가로 1.8m, 세로 1.15m로서 있다.

\* 참고문헌 : 碑文

## 이경억(李慶億) 신도비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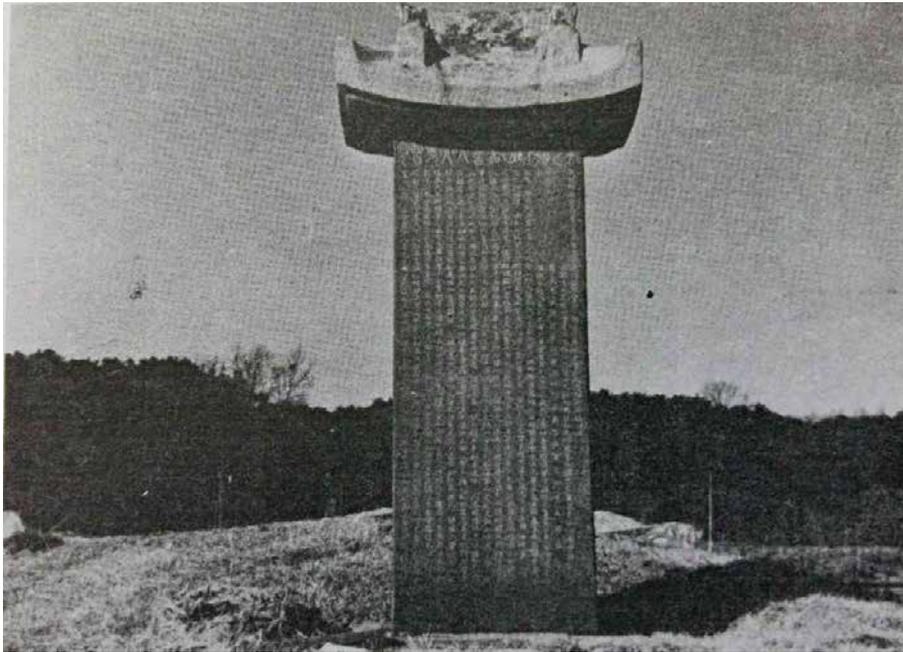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

이경억은 1620년 (광해군 12년)에 태어난 문신(文臣)으로, 1644년(인조22)에 응시 문과에 장원하고 1653년(효종 4년) 순안어사(巡按御史)가 되어 영남지방을 순찰했고 도승지까지 올라 1667년(현종 8년) 대사헌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이조, 호조, 형조, 예조판서를 역임하였고 우의정,좌의정에 이르렀다. 1673년 (현종 14년) 사후 시호를 문익(文翼)으로 내렸다.

금남 영대국민학교 우측 산에 신도비가 있고, 100m 정도 위에는  
방형 돌레석을 두른 묘가 있다.

\* 참고문헌 : 郡誌, 文化財總損

## 이유태(李惟泰) 신도비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종촌리

서기 1607년 (선조 40) 금산군 노동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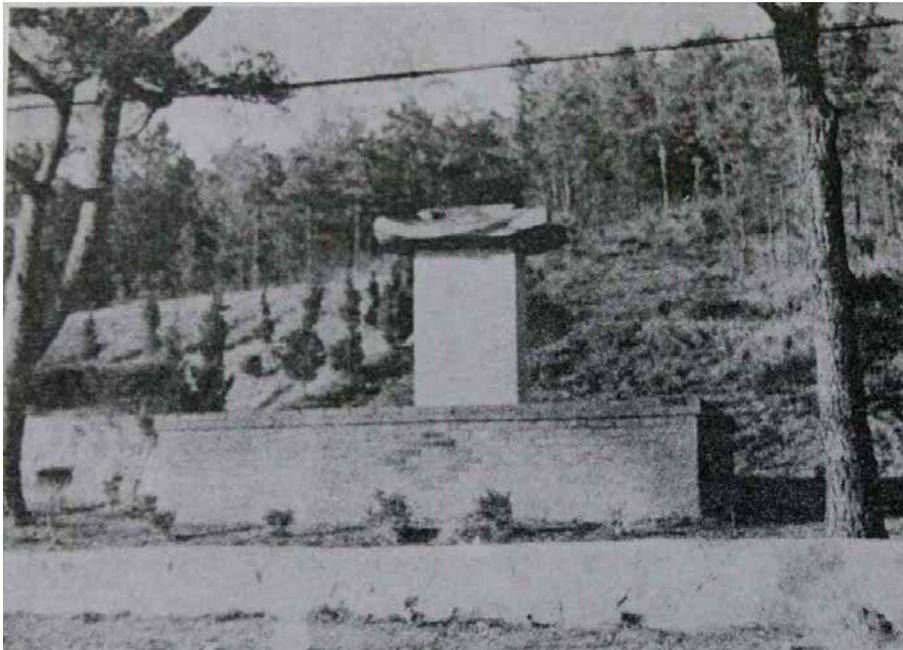
본관은 경주이며 김장생, 김집의 문하생으로 문장에 능하였으며 특히 예능에 조예가 깊었다. 유일(遺逸)로서 천거를 받아 인조때 세자사부(世子師傅)를 지내고, 1660년(현종1) 호군(護軍)으로 공조참의를 거쳐 이듬해 이조참의가 되었다. 1669년 찬선(贊善), 이듬해 다시 이조참의를 지내고 효종 즉위 후 송시열, 송준길 등과

함께 북벌계획에 참여했다. 3사(三司)가 김상헌을 탄핵하자 장문의 상소로써 김상헌의 충의도덕(忠義道德)을 높이 찬양하여 그 처벌을 극력 반대했다. 1675년(숙종 1) 복상문제(服喪問題)로 제2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대사헌으로 윤희등 남인(南人)의 배척을 받아 영변에 유배, 5년뒤에 풀려났다.

처음에는 송시열과 의견을 같이했으나, 뒤에는 학문상 의견의 대립으로 절교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연기군 남면 종촌리에서 공주방면으로 1km지점 솔밭에 묘소가 있고, 묘소앞 200m지점에 신도비가 있다.

\* 참고문헌 : 碑文

## 김경여(金慶餘) 신도비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이조 효종때의 문신(文臣)으로 자는 유선(由善)이고 호는 송애(松崖)이며 본관(本貫)은 경주이다. 1624년 (인조2년)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가 되었고 1633년(인조11)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정언(正語), 지평(持平)등을 역임 1636년(인조14) 병자호란때 왕을 모시고 남한산성에 피난했다.

이듬해 청나라에 항복한 뒤로는 조정에 나가지 않고 고향 회덕에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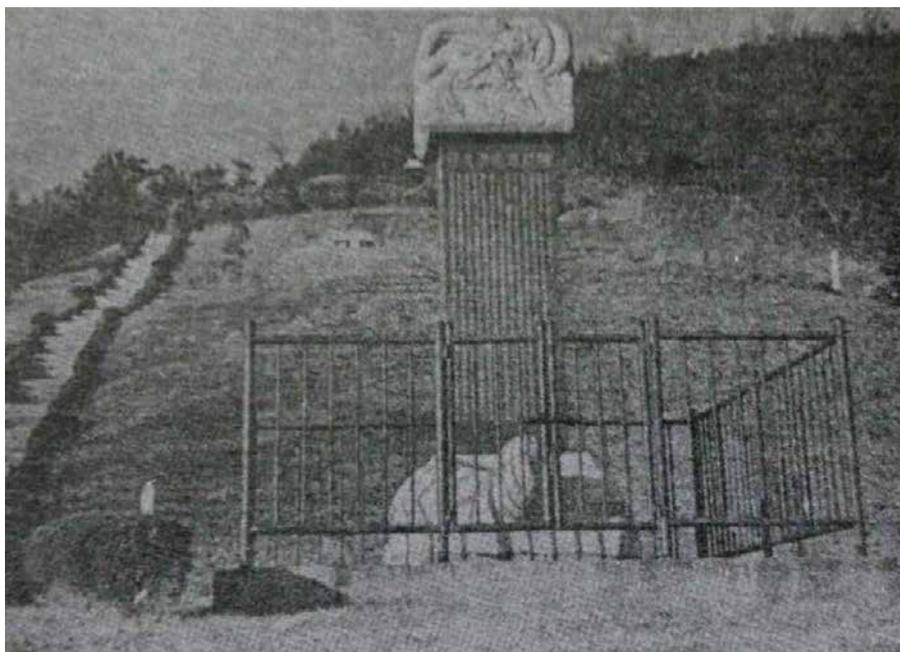
조정에서 수차 대간(臺諫)에 임명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음으로써 금교역(金郊驛)에 유배되었다. 1649년(효종 즉위년) 대사간이 되고 송준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과 깊은 친교가 있었다.

이듬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특히 군사력 배양에 힘썼으며, 이어 부재학(副提學)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였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 참고문헌 : 仁祖·孝宗實錄

國朝人物考, 國祖榜目

## 한충(韓忠) 선생의 묘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서면 고복리 산양동

송제 한충선생은 지금으로부터 470여년전 충북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 학곡(鶴谷)에서 참의공 창유(昌愈)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때는 이조 성종 17년 (서기 1486년) 7월 2일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재주와 도량이 넓고 용모가 단정하여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일컫더니 3살의 어린나이에 천자문을 배우고 7살에 시(詩)를 지을 줄 알았고 12세에 이르러 충청감시에 급제

하였다.

1513년에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518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해 겨울 (1519년 12월 20일) 을묘사화(乙卯士禍)에 조광조(趙光祖)와 교우가 있었다하여 거제도(巨濟島)로 유배되어 2년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육성 하였으며 임금을 위한 충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1521년(중종16년) 11월 21일 임금의 보살핌을 받아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왔으니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의금부에 투옥되었다가 자객에게 피살되니 때는 1521년 12월 22일 선생의 나이 35살이었다.

뜻있는 선비는

오직 나라 있음을 알뿐.

집이 있음을 생각지 않으며

다만 임금이 계심을 알고

제몸 있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士君者 但知有國 不知有家

但知有國 不知有身

위 글귀에서 우리는 선생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인품을 짐작 할 수 있다.

연기군 서면 고북리 산양동에 그분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 참고문헌 :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碑文

## 효자 최 회 (崔 澮)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최 회(崔澮)는 1563년(명종 18년) 3월 12일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열세살 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상을 치른 후에도, 상옷을 벗지 않은 채 3년간을 하루 같이 묘소에서 찾아가니 그지극한 효성이 널리 알려져 주위 사람들을 크게 감동 시켰다. 회는 효성이 지극할 뿐 아니라, 친구들과도 우애가 깊었으며 학문을 닦는데도 게을리지 않아서 생원(生員) 벼슬을 하였다.

그의 나이 57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노환으로 병고에 시달리자, 자신이 늙은 몸이면서도 대·소변을 받아내는 지성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부유한 가정으로 머슴이 있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심부름은 일절 시키지않는 효자였으며, 어머니의 대·소변을 맛으로 판단하여 약을 쓰기도 했으며 추운 겨울에도 매일 목욕재계(齋戒)하고 어머니의 쾌유를 하늘에 기도하였다.

회는 오랜 피로가 누적되어서인지 자리에 눕게되어 이듬해 봄에 어머니에 앞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유림에서 최회의 지극한 효성을 조정에 알리어 1686년(숙종12)에 나라에서 정문을 세우도록 했다.

\* 참고문헌 : 燕岐邑誌 · 海東三綱錄

## 열부 전주이씨(全州李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전주이씨(全州李氏)는 17759년(영조 35년)에 공주(公州)에서 출생하여 열한 살 되던 해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집 뒤에 있는 어머니 묘를 3년을 하루같이 성묘 하였으며 열아홉 살에 조치원읍 봉산동 최지철(崔之喆)에게 출가 하였다.

시집온지 1년만에 남편이 죽자 남편을 따라 죽으려하자 친정 아버지는 “유복자(遺腹子)라도 있을지 모르니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하고 타일렀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몸을 천금같이 아끼며 5삭(朔)을 지냈으나 태기가 없자 다락에 올라가 메어 남편의 뒤를 따르니 이씨 나이 20세였다.

정조대왕은 이씨의 열행을 전해 듣고 포상(褒賞)을 내리시고 정려를 명하였다.

1784년(정조8년) 정려는 봉산동 170번지 대로변에 있던 것을 1974년 현 위치로 이축하였다.

\* 참고문헌 : 旌閭記

## 효자 이봉환(李鳳煥)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효자 이봉환(李鳳煥)의 본은 원주(原州)이며 자(字)는 명서(鳴瑞)이니 중종때 부제학 만균(副提學 萬鈞)의 후손으로 서기 1805년(순조5) 11월 1일에 출생하였다.

그의 나이 5세되던 해 어머니 강씨(晋州姜氏)의 병환이 위독하자 그는 천지신명에게 어머니의 병환이 쾌유하기를 기원하면서부터 어머니의 병세는 차츰 차도가 있었으며 13세때에 이르러서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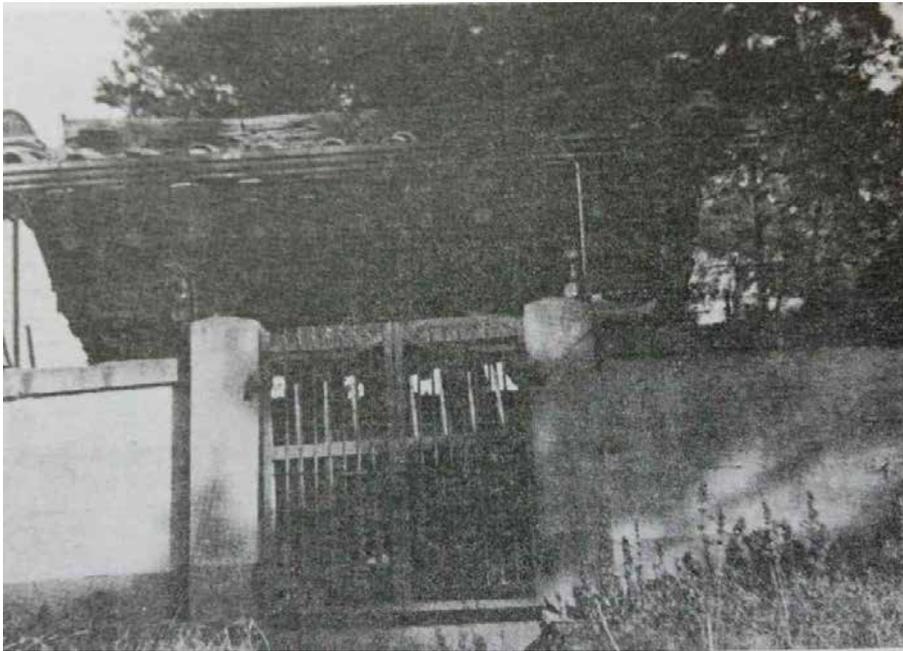
시 노환이 위중하게 되자 대·소변을 맛보며 정성으로 모셨으나 어쩔수 없이 운명이 다가오자 손가락을 베어 선혈을 드렸으나 끝내는 돌아가시었다.

설상가상으로 형 문환(文煥)이 병석에 눕게되자 그는 백방으로 약을 구했고 나아가서는 의사의 지시에 설중(雪中)에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얻기 힘든 뱀을 구해서 먹였으니 씻은 듯이 회복되었다.

그후 봉환은 10개읍(邑)의 유림(儒林)들의 특천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이 증직(贈職)되었으며 1922년 11월에 효자포상(孝子褒賞)이 있었다.

\* 참고문헌: 碑文

## 효열부 언양 김씨 (彦陽金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동면 노송리 2구

열녀(烈女) 언양김씨(彦陽金氏)는 첨정(僉正) 김증(金澄) 딸이며 좌랑(佐郎) 장흥헌(張應軒)의 아내이다.

김씨는 16세에 장씨 집으로 출가하여 지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며 남편에게도 아내의 도리를 다 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병들어 눕게 되어 김씨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했으나 보람도 없이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상투

속과 온 머리에 우글 거리는 이 때문에 병석의 노인을 더욱 괴롭혔다.

이렇듯 이중으로 병고에 시달리는 시아버지의 고충을 덜기 위해 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이를 옹기는 방법을 되풀이 하면서 지성으로 시아버지를 모셨다.

세월은 흘러 시아버지가 83세가 되던 병자년(丙子年)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서울을 빼앗겨 국운은 바야흐로 풍전등화 격이었다.

이때 김씨는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늙고 병든 시아버님과 두 자식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시키되 만약에 온 가족이 무사하지 못 할 경우 두 자식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아버님만은 무사하게 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

한편 김씨는 병든 시아버지와 남편 두 아들을 뒷문으로 피하게 하고 김씨가 앞문으로 나가는 순간 오랑캐들이 김씨에게 다가섰다.

오랑캐들은 젊은 김씨의 용모를 탐내어 쫓아가니 김씨는 재빨리 강가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오랑캐들에게 쫓기어 황탄나루 (연기군 동면 예양리 북쪽 미호천 중류)에 이르러 검푸르고 깊은 강물로 뛰어 들었으니 뒤를 쫓던 오랑캐 두목은 그나마 한가닥의 인정이 있었던지 부하들에게 김씨의 시신을 건지라는 명을 했다.

그들은 김씨의 절개와 용기에 감동했던지 강변에 안장을 하고 나무에 비문을 써서 묘 앞에 세웠다 한다.

김씨의 묘에 비문이 세워진 후로 다른 오랑캐들도 그 비문을 읽고는 두번 다시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 한편 전란이 끝나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그들 가족들은 김씨의 묘소를 찾아 날

짜를 새로 잡아 장례를 지내려고 묘를 파고는 깜짝 놀랐다.

죽은 김씨 부인의 얼굴 바탕이 생전에 산 사람 모습 그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정성을 드려 묘를 다시 썼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나라에서는 정려를 세우고 타(他)의 귀감이 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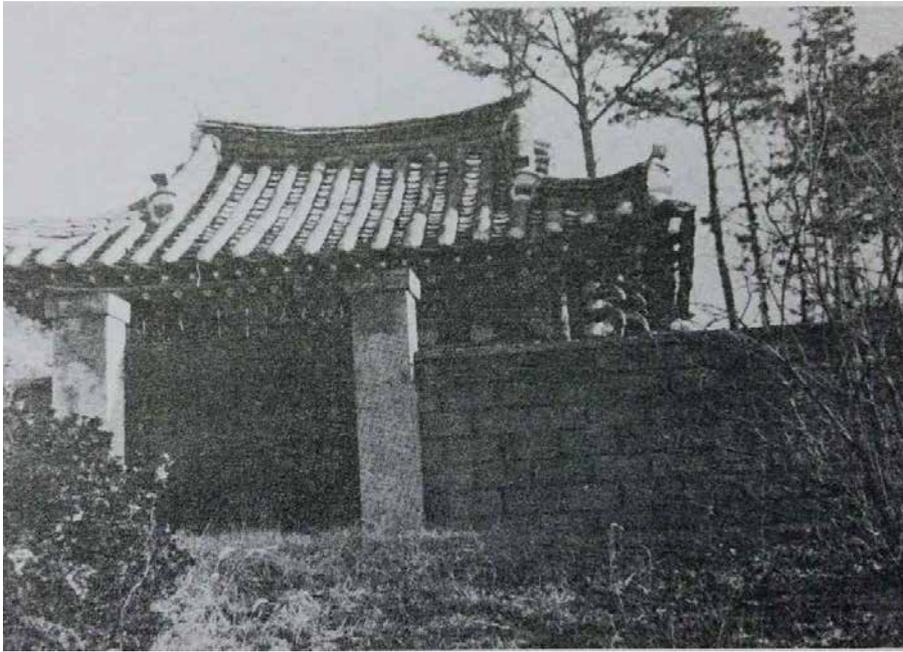
여기에 조진사(趙進士)의 정경기문(鼎慶記文)을 보면  
“깊은 정성으로 시부모 보전하였으니 효(孝)이며  
남편을 대신하여 죽으니 열(烈)이며  
아이들을 살리고자 스스로 희생하였으니 자(慈)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스스로 도적의 미끼가 되었으니 지(智)이며  
오랑캐들을 짐승으로 꾸짖으니 의(義)이며  
눈으로 어찌 깊고 깊은 물을 안 보았을까마는 그 물을 밝고 죽으니 인(忍)이니라

여장의 몸으로서 이러한 문덕(文德)을 고루 갖추었으니 어찌 큰 뜻이 아니겠는가?” 하고 효열을 칭송하였다.

(현재의 정문은 1638년(인조 16년)에 세울 것을 명하여 1793년(정조 17)에 건립되었으며 1904(광무 8년)에 중수하였다.

\* 참고문헌 : 旌閭記 燕岐郡誌

## 양세 열녀 손씨와 성씨(孫氏,成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동면 내판리

열녀 밀양(密陽) 손씨는 김기철(金基喆)의 처로서 현재 연기군 동면 내판리에 살고 있는 김재봉(金在鳳)의 증조모이다.

손씨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부지런해서 주위 사람들의 칭송과 선망(善望)을 움뎠으며 살았다.

그녀의 나이 16세에 이르니 사방 여기 저기에서 혼담이 부산스레 오고 가다 안동김씨(安東金氏) 집으로 출가를 했는데 손씨가 임신

4개월이 될 때 남편과 사별을 하였다.

죽은 남편의 삭망(朔望)을 당할 때마다 손씨는 정성을 다하여 제삿상을 차렸으며 얼마후 유복자가 성장하여 며느리를 보았으니 창령(昌寧) 성씨였다.

그들의 집안에 며느리를 맞는 경사가 찾아들이기 바쁘게 불행이 닥쳐 왔으니 성씨가 남편을 맞은지 얼마 안되어 그의 나이 20세 되던 해에 남편을 잃었다. 손씨는 아들을 잃었고 성씨는 남편을 잃었던 것이다.

젊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의 비통함은 아주 비길데 없었으나 속담 그대로 그 시어머니에 그 며느리라 성씨 또한 정절이 곧아서 집안 살림에도 부지런 하였으며 자녀 교육에도 비상한 정성을 쏟았다.

또한 남달리 인정이 많은 성씨는 불우한 이웃들을 잘 도왔고 이웃간에 우애가 깊었다. 손씨와 성씨의 몸 가짐이 이토록 바르고 곧으며 주위 사람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 두여인들의 가특한 정절을 조정에 알렸다. 조정에서는 이들의 높은 뜻을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정려문(旌閭門)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당시 홍문관 교리 조진만(趙鎭萬)이 짓고 장태섭(張台燮)이 쓴 비문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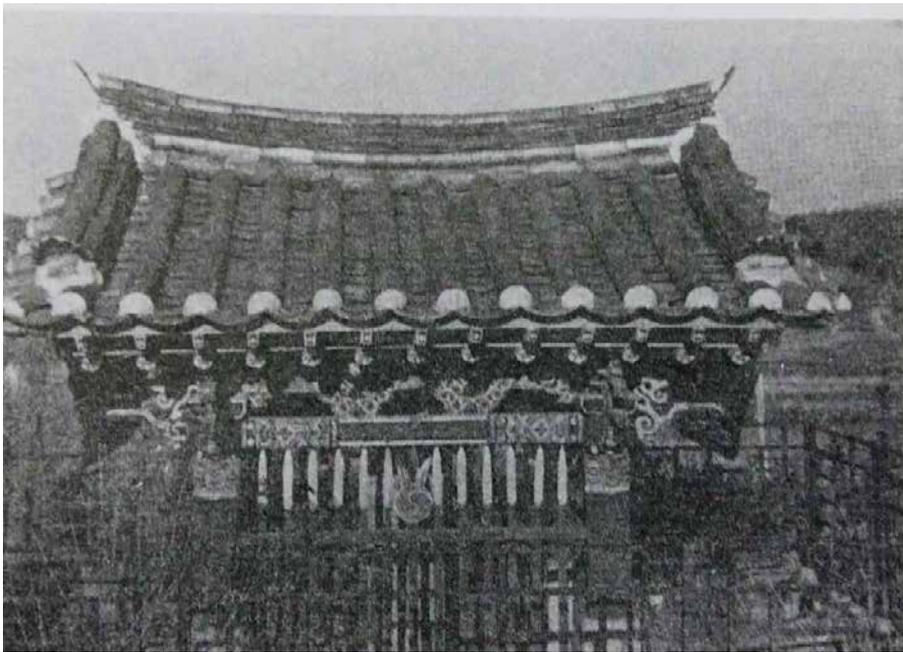
“난초가 골이 났으니

그 향기가 멀리도 가누나...”

하고 두여인의 정절과 아름다운 일을 찬양했다.

참고문헌 : 燕岐郡誌

## 열녀 광산 김씨(光山金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동면 응암리

열녀 광산김씨(光山金氏)는 광성군국광(光城君國光)의 후손인 귀택(貴澤)의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영리했고 부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하면서 성장한 그녀는 무안(務安) 박기정(朴基鼎)이 한테 출가를 했는데 그녀의 남편은 초혼에 사별(死別)하고 김씨와의 재혼으로 새 출발을 하였으나 혼례 3일 후에 재행(再行)을 가서 뜻 밖에도 병

을 얻어 눕게 되었다. 남편의 병을 고치려고 밤낮으로 온갖 정성을 다 했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자 드디어는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기 까지 했다.

그런 정성으로 남편이 의식을 되 찾아 차도가 있자 김씨는 보람을 느끼며 간호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한편 차도가 있었던 남편의 병세는 다시 악화되어 끝내는 죽고 말았으니 김씨는 남편의 빈소(賓所)에서 약을 먹고 남편의 뒤를 따르려는 심산이었다.

이러한 김씨의 마음을 알아 차린 숙모는 김씨를 타일러 새로운 결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에 마음을 달리한 김씨는 남편의 장례를 잘 모신 후 외로운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다 시어머니도 세상을 떴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묘를 삼년이나 모셨다.

김씨는 그후 멀리 당진군(唐津郡)에 사는 먼 집안에서 응현(應鉉)이란 어린이를 양자로 삼은 후에 정성으로 키웠다.

마침 이 지방에 도백의 행차가 있어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보고하고 표정(表旌)케 했으니 때는 고종(高宗) 13년(서기 1876년)으로 우의정 송근수가 정문을 쓰고 도백 민영태가 계판(揭板)하여 현판을 모시다가 1952년 4월 정문(旌門)을 세워 비문과 현판을 모시게 되었다.

\* 참고문헌 : 烈女 金氏 旌閭記

## 효자 임양문(林養文)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동면 용호리

임양문(林養文)의 자는 표(豹)요 관은 부여로 서기 1804년(순조4) 향리에서 출생 하였으며 그는 남다른 효성으로 주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의 집은 가난해서 부모를 모시는데 여간 힘겹질 않았으나 그는 항상 웃는 얼굴과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셨다.

그의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하여 눈보라 치는 엄동에도 산에 올라

가 약초를 캐어다 아버지에게 올렸으며, 어머니 마저 병고에 시달리게 되자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그는 그는 부모의 대·소변을 맛보아 가면서 병세를 짐작했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올리는 정성을 다 하였으나 그러한 보람도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소에 풀집을 만들어 3년상을 모셨으니 그 효성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1904년(고종41)에 정려를 명하여 후손들이 이곳에 건립 하였다.

\* 참고문헌 : 旌閭記, 族譜

## 효자 김백열(金白悅)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동면 내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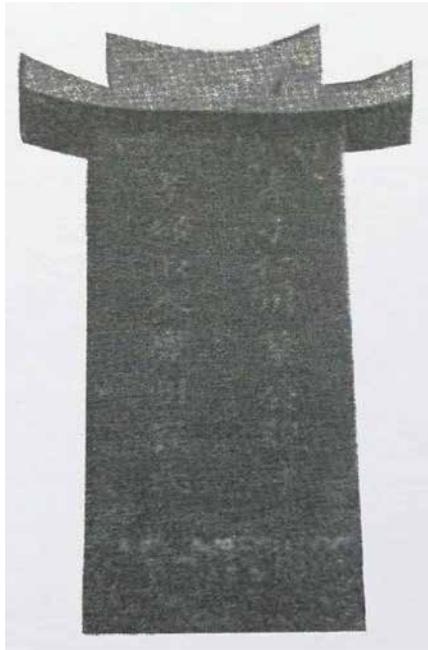
효자 김백열은 안동(安東) 사람으로 서기 1816년(순조16) 에 출생 하였다.

선생은 나이 5세에 아버지가 병에 들자 어린몸으로 매일같이 병간호를 지극히 하였으며 어느날 꿈에서 백발 노인이 나타나 어린 그를 아낌없이 칭찬 하면서 곳감이 아버지 병에 특효라는 말에 그것을 구하여 드리니 감쪽 같이 쾌유하자 세상 사람들이 크게 감동

했고 1890년 (고종27)에 동몽교관 조봉대부(童蒙教官朝奉大夫)  
로 증(贈)하고 정려를 건립케 했다.

\* 참고문헌 : 旌閭記, 族譜

## 효자 채관형 (蔡觀亨)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동면 합강리

효자 채관형은 자가 여현(汝賢)이고 본은 인천(仁川)으로 순조때 태어났다.

다섯 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항시 근면 성실하여 어머니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어머니는 노쇠하시어 병석에 눕게 되자, 그는 온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모셨으나 병환에는 차도가 없어, 우렁이와 달팽이가 효력이

있다하여 매일 즙을 내어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뜨물을 끓여드려 입 맛을 되찾게하니 오래 괴롭혔던 고질병도 씻은 듯이 나왔다.

여현이 성장하여 경주최씨(慶州崔氏)와 결혼을 했는데, 이부인 또한 효부(孝婦)였으니,

최씨는 언제나 말하기를

“사람이 늙을수록 기력이 없고, 혈기조차 없어 몸이 냉하기 마련이니 사랑의 온기가 필요하다.”

하며 시어머니의 이불 속에서 자리를 같이 하기를 몇년이였다.

한때는 시어머니의 머리에 종기가 생겨 머리를 감지 못하니 머리에 이가 생겨 고생을하자, 최씨는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시어머니와 맞대어 잠자리를 하니 기름 내움에 이가 그녀에게 옮기게 했다한다.

여현이 겨울에 우렁이와 달팽이를 구한 것은 삼국시대 맹종(孟宗)이란 사람이 겨울에 죽순을 구한 것이나 같고, 최씨가 자기 체온으로 시어머니 몸을 덥게 해준 것은 중국(中國)의 옛 이야기에 시어머니에게 자기 젖을 먹여 살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 참고문헌 : 碑文, 族譜

## 5세7호 홍연경외(洪延慶)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서면 기룡리

이 비의 주인공 홍연경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도사(都事), 후에 공조참의(工曹參議) 벼슬이 주어졌으며, 집안에서 효자가 비단 연경 뿐이 아니라 대대손손(代代孫孫) 효자가 많이 나왔으니,

우선 연경의 아들 연설(延壽)은 자기 아버지를 이어받은 효자로 호랑(戶郎)의 벼슬은 받았고 후에 사복사정(司僕寺正) 까지 올랐다.

그리고 연경의 손자대에 이르러서는 3명의 효자가 나왔으니 우적(禹積), 우평(禹平), 우구(禹九)가 바로 그들로 효성이 지극하다해서 지평(持平)의 벼슬이 주어졌다.

어디 그뿐인가 연경의 중손인 만(鋌)도 효성이 뛰어났다 하여 복호(復戶)를 받았으니 복호란 충신, 효자, 열부가 난 집안의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효행이 얼마나 훌륭했던가 짐작할 수 있다.

이 집안에서 효행은 계속되어 연경의 현손(玄孫) 대에 와서는 2명의 효자가 나왔으니 득후(得厚)와 득일(得一)로서 득후는 효자로서의 벼슬을, 그리고 득일은 역시 효자로 복호(復戶)를 받았다.

여기서 연경이가 살던 동래(현기룡리) 이름을 망동(望洞) 또는 마룡동(馬龍洞)이라 칭하였는데 이름을 효교(孝橋)라 바꿔 부르게 되 연유를 잠깐 살펴보자.

영조때 홍문관 제학(提學) 이정보(李晶輔)와 도승지(都承旨) 이석상(李錫祥)이 쓴 정원일기(延院日記)에 보면 연경의 현손 득후의 양자 상직(相直)이 가선(嘉)이란 벼슬에 오른 후에 입조(入朝)에 자주 참석을 못하였다한다.

이에 이상하게 생각한 영조대왕은 어느날 도승지인 이상석에게 그 사유를 물으니

“홍상직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소가 고향인 충청남도 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성묘차 고향에 내려가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줄 아옵니다.” 하고 사실대로 알려드리자.

영조는

“아 그래서 그랬구려. 홍상직의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

영조는 새삼스레 그의 효행에 감탄해 마지 않았다.

이어서 이석상이 아뢰기를

“홍상직의 선조들은 효행이 한결같아 5세(五世)에 걸쳐 7효(七孝)가 나온 훌륭한 집안인 줄 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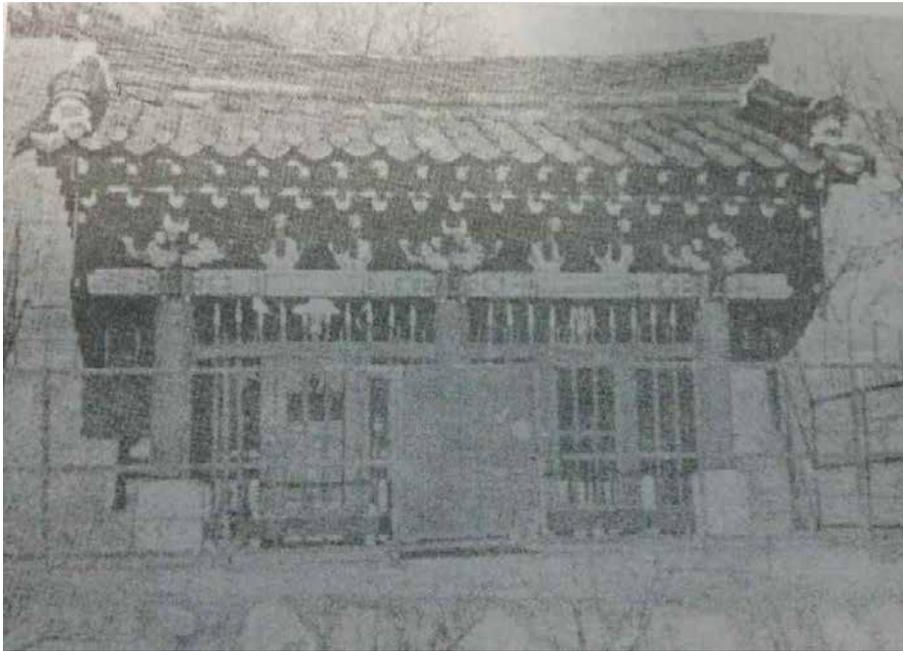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영조대왕은

“그렇다면 홍상직의 본향(本鄉)을 효교(孝橋)라고 바꾸도록 하라” 명하신 후 마룡동은 효교동이 되었고, 현 기룡리 입구에 거주하던 홍연경의 손자 우구의 후손들이 서면 원신대리(元新垈里)에 대대로 모여살고 있다.

그들은 선조들의 높은 덕을 기리기 위하여 신대리의 기룡리 경계 되는 곳에 효교비(孝橋碑)를 세웠다.

\* 참고문헌 : 碑文, 燕岐郡誌

## 효자 김종철 (金鍾喆)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서면 쌍류리

주인공 김종철은 강릉(江陵) 사람으로 1755년 (영조 31)에 김상기(金尙基)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고 집 안에서나 밖에서 놀때도 부모가 싫어하는 장난이나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부모의 곁에 있음을 즐거움으로 알았다.

그가 멀리 절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가끔 집으로 와서 부모를 뵈

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그의 비범한 효성은 그의 나이 8세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 송씨(宋氏)가 병을 앓고 있어 매일 한밤중에 일어나 찬 이슬을 맞으면서도 하늘에 기도를 하며 어머니 병의 쾌유를 빌었으며 어머니가 식사할 때마다 움직이는 손가락의 돛수를 세어 보면서 식사를 얼마나 맛있게 잡수었나를 알아 보았고 약을 드릴 때에도 반드시 약의 맛이 어떤가를 먼저 맛을 본 다음에야 드렸다.

어느날 한밤중 그는 집에 데리고 있는 종과 함께 먼 거리인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비좁고 가시밭 험한 산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범 한 마리가 나타났다.

순간 종은 녀 빠진 상태에서 오돌오돌 떨어졌으나 그는 “약을 구하러 나왔으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비겁하게 물러 설 수가 있겠는가”하고 종에게 타일르며 유유히 앞으로 나서는데 범은 슬금슬금 몸을 피하는 것이었다.

어린 효자의 정성에 감동한 하늘이 효자를 돌보았다고 주위사람들은 말한다.

이러한 극진한 지성도 보람없이 그의 어머니는 1767년(영조 43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 종철의 나이 열두살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산소를 찾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1788년(정조12년) 64세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때까지 그의 극진한 효성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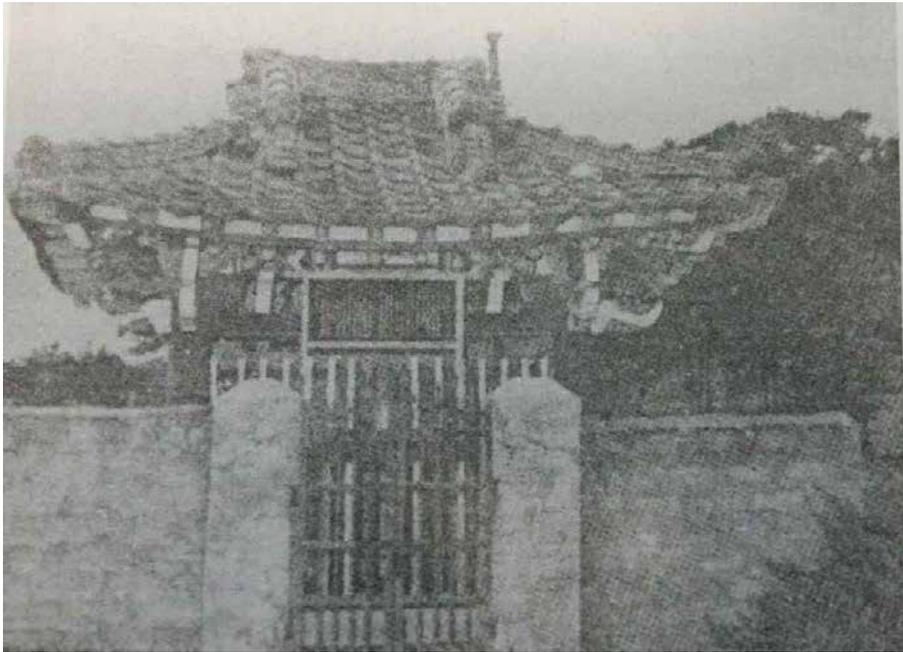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환자의 변을 맛보면서 병의 증세를 알아냈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는등의 효성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기특함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청라리(靑羅里)마을 뒤에 안장 하였으며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몇 대를 안가서 수십호를 이루어 그의 장질(長姪) 경현(景賢)은 무과에 오른 이후 울진군수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그는 18177년(순조17년)에 세상을 떠나니 62세였다.

그후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1868년(고종5년)에 효로써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추증되었으며 정려를 세우게 되었다.

\*참고문헌 : 燕岐郡誌, 孝子金公宗喆傳, 江陵金氏世譜

## 효자 성이복(成爾復)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서면 와촌리

성이복(成爾復)은 교위(校衛) 성인산(成二山)의 후손으로 본관은 창령(昌寧)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는 밤낮 책을 가까이하여 학문을 익혔으며 효행이 또한 지극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어느날 그의 아버지가 심한 병으로 눕게 되자 그는 온갖 정성을 다 했으나 신통치 않아서 그는 결국 아버지의 병은 하늘의 힘을

받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집 뒤에 단을 쌓아 정수를 떠 놓고 기도를드렸다.

성이복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성이복은 생각끝에 손가락의 피를 내어 드렸으나 사흘이 못가서 아버지를 잃고 말았다.

아버지를 잃은 그는 아버지의 묘소에서 밤낮 3년을 모셨다.

어느날 그는 슬피 울며 산중을 정신없이 헤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효성에 날짐승인 까마귀도 갈등했던지 성이복이가 떨어뜨린 탕건을 물어다 그의 집 앞 대추나무에 걸어 놓고 날아갔다 한다.

이러한 그의 효행이 날로 알려져 드디어 관가에서는 조정으로 전해져 1891년(고종 28년) 정려(旌閭)를 짓게하여 모든 사람들의 본 보기로 삼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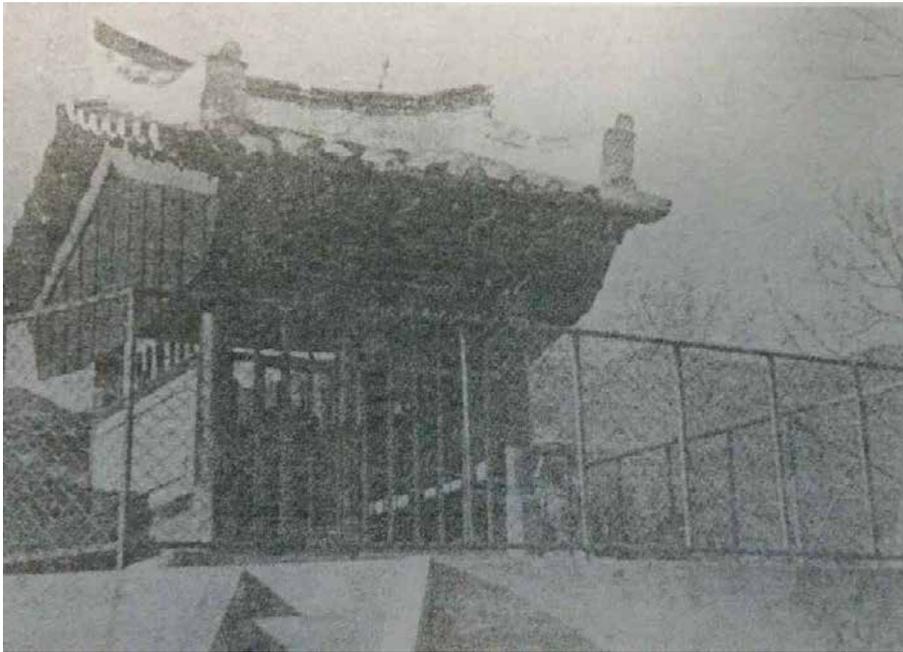
참판 이대식(參判李大植)은 아래와 같은 글을 지었다.

“아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복(爾復)의 효성된 마음은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또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고 할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효도를 의무처럼 생각하나, 효도는 의무이기 앞서 자연히 솟아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 호자 김한정(金漢鼎)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서면 쌍류리

김한정은 강릉(江陵) 사람으로 서기 1757년 (영조 33) 서면 청라리에서 출생했다.

공이 19세때 부모님 모두 병환에 있었으니 아버지는 위장병과 구토증 어머니는 허약 고질병이었다.

이에 그는 아내와 백방으로 좋다는 약을 전부 구해 드렸고, 아버지에게는 생지(生芝: 일종의 약초)가 특효라 했고, 어머니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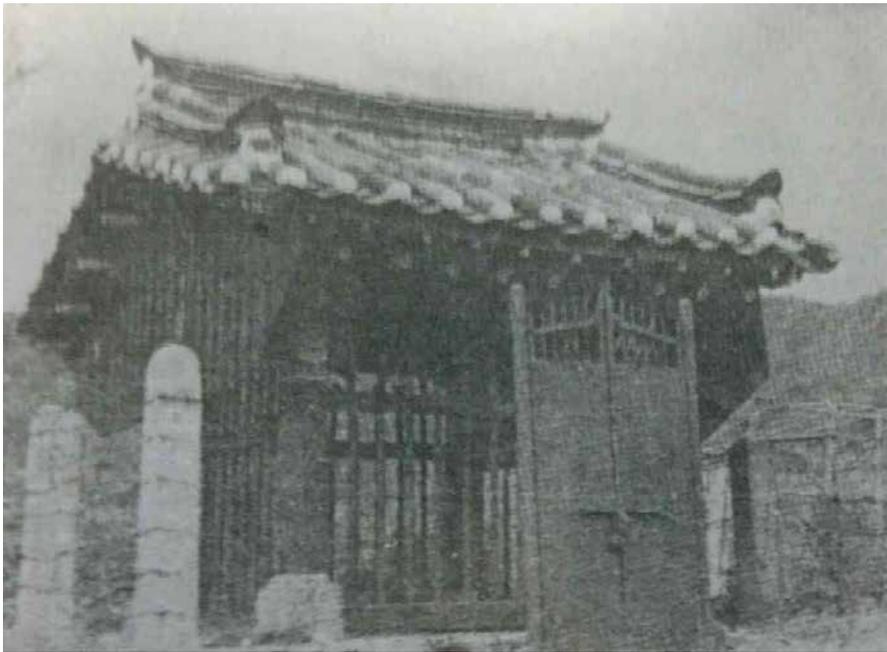
생어(生魚)가 특효라는 말에 그들 부부는 집 뒤에 약초를 심었고 문밖 조그만 샘에는 생어를 길러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정성을 다했다.

그렇게하기를 20여년 부모가 모두 70의 장수를 누리게 되었으니 주위의 칭송이 대단했다.

더구나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의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을 하루같이 모시니 유림(儒林)에서 공의 효행을 조정에 올리어 조정에서는 하선대부호조참판(嘉善大夫戶曹參判)을 증직(贈職)하고 정해년(丁亥年)에는 정려(旌閭)을 명하니 임술(壬戌) 2월 7일에 건립하였다.

\*참고문헌 : 旌閭記, 族譜

## 효부 부안임씨(扶安林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서면 와촌리

부안임씨(扶安林氏)는 동지중추(同知中樞) 두칠(斗七)의 아들인 시윤(時潤)의 딸로 연기군 남면에서 태어나 서면 기계유씨(杞溪兪氏) 유삼순(兪參順)에게 출가 했다.

그녀는 시부모 공양에 효성을 다하고 남편 섬기기와 사람 대하기를 예절로 대하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화목했고, 이들에 대한 칭송이 널리 퍼졌다.

어느날 시어머니가 병에 걸려 수년동안 병석에 눕게 되자 천리길도 마다 않고 좋은 약을 먹게 했으나 효력이 없자 임씨는 생각 끝에 사람의 고기가 특효란 말에 자신의 허벅지 살을 서슴없이 베어 구워 드렸다.

신통하게도 대·소변까지 받아내던 시어머니가 감쪽같이 쾌유되어 문밖 출입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병이 재발되어 몸져 눕게 되니 며느리는 하루 세 번씩 목욕재계 하고 집 뒤 산상봉에 제단을 쌓아 놓고 하늘에 정성어린 기도를 올렸다. “황천의 신명님과 일월성신 산신령께서는 저의 연약한 정성의 기도를 받아 들이시와 시어머니와 자신의 몸을 대신케 하여 시어머니의 병을 쾌유케하여 주시옵소서.”

비 - 바람이 모질게 뿌리고 눈보라가 눈앞을 가려도 9년이란 긴 세월을 산상에 오르며 기도를 드렸다.

하늘을 날으는 큰 메 까지도 나타나 제단 주위를 날면서 부정한 것이 제물에 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녀의 지극한 효성에 감복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기도하던 곳을 “임씨 기도봉”이라 이름하고 그의 효성을 기렸다. 그러던중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가까워오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시게 하니 잠시 제정신이 돌았다고 한다. 임씨의 이러한 효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나라에서는 임씨에게 효열부의 포상을 주고 이곳에 정려를 세웠다.

\* 참고문헌 : 燕岐誌, 旌閭記

## 효자 김 연 (金 連)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서면 청라리 1구

김연(金連)의 자는 성기(聖器) 본은 강능.

그는 서기 1721년(경종 1) 12월 24일에 태어나 1785년(정조 9) 그의 나이 64세에 세상을 떠났다.

공은 홀로 계신 아버지의 중병에 백방으로 약이란 약을 썼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한 어느날 아버지가 위급하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이니 그 차도가 점차 좋아졌고 그러면서

그는 크게 용기를 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 간호를 극진하게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2년이 못가서 돌아가셨고 묘소에 막을 짓고 3년상을 보냈으니 그의 효행이 세상에 널리 퍼졌고 유럽에서는 조정에 그의 효성을 상신 하였으니 임금은 그에게 극진한 효행이라 하여 정려문을 세우게 하여 모든 이들의 본 보기로 삼았다.

\* 참고문헌 : 旌閭記, 族譜

## 열녀 경주 최씨(慶州崔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서면 봉암리

1843년(헌종 9년) 신탄진에서 태어난 경주최씨(慶州崔氏)는 윤태풍(尹泰豊)의 어려운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시부모를 지성으로 모셨으며, 집안이 어려워 남편이 외지로 품팔이를 나가자 여자 혼자 몸으로 시부모를 공양하였다.

시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까지 병으로 고생하게되어 생활에 어려움은 더 하였으나 굳은 의지와 부덕(婦德)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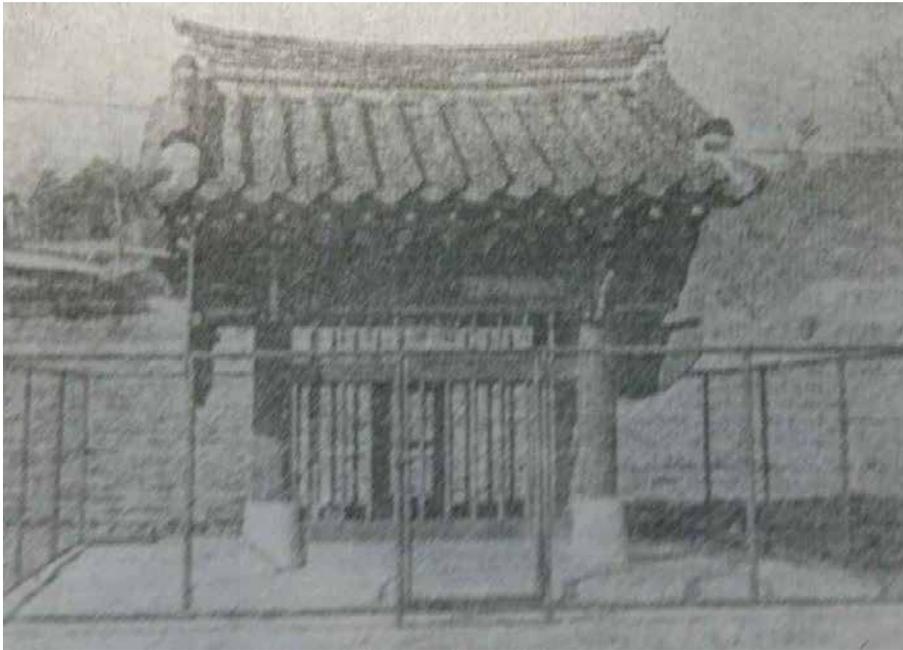
지성으로 하니 주위의 칭송이 그치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후 3년상을 무사히 치루니 유림(儒林)들이 나라에 알리어 정려(旌閭)를 세우게 하였다.

지금 있는 정려는 현 위치에서 100여m 아래 쪽 동네 한 가운데 있던 것을 1980년 10월 연기군에서 50만원 나머지 윤씨문중에서 부담하여 현재 위치로 옮기면서 중수(重修) 하였다.

참고문헌 : 旌閭記

## 열녀 의성김씨(義城金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서면 부동리

조치원에서 송학까지 가는 시내 버스를 타고 가면 32사단을 지나 비포장 도로에서 약 500m지점에 아담한 정문이 마을 앞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정문의 의성김씨(義城金氏)는 경명(敬命)의 장녀로 금남면 반곡리에서 1888년(고종 25년)에 태어나 14세에 서면 부동리(釜洞里) 이금성대군(李錦城大君)의 후손 성호(聖浩)에게 시집을 갔

다. 시댁은 가난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시어머니에 병환을 40여 년간을 두고 대·소변을 받아 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이 날로 기울 어지자 남편 성호는 행상을 한답시고 집을 떠나 함경북도 회령쪽으로 가서 일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 걱정을 하던 중에 어느날 편지가 왔다. 김씨는 무슨 희소식인가 하고 곁봉을 뜯어 보니 병환이라는 맑은 하늘에 벼락 같은 사연이었다.

김씨는 혹시 시어머니가 눈치를 챌까 두려워하여 내색조차 하지 않았고 이웃 아낙네들에게만 부탁을 하고 집을 나섰으니 자그만치 오천리의 머나먼 곳이었다, 그 머나 먼 길을 몇일을 두고 회령 땅에 이르고 보니 남편은 이미 운명을 해서 그녀가 도착한 전날에 화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옷 보따리에 유골을 챙겨 밤낮없이 걸었다. 걸어 가다 지치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가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도 했다.

인가에서 밤을 지내면서도 주인집 아기가 울거나 하면 자기 탓(유골)인가 하고 주인 몰래 뛰쳐오기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김씨 그녀는 55일간이라는 무수한 고생끝에 집에 돌아와 안장을 하고 3년상을 예법으로 치루었으나 장차 살아갈 길이 막연했다.

그러나 외로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름에는 찌는듯한 무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눈보라와 싸우면서 닥치는대로 일을 했다.

이러한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몸조심 하라며 걱정을 했으니 그녀는 타고난 숙명인 양 하루를 편히 쉴 줄 모르고 억척스럽게 어려움을 이겨 나갔다. 그것은 시어머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력무력 커가는 두

아들 때문이기도 했다.

두 아들은 극진한 모성에 감동하여 학문에 열심하였고 또한 지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으니 어머니는 90세까지 장수하셨으며 성균관장이 그녀를 열려로 표창을 내리는가 하면, 성균관에서 효열 현판을 증정받아 1980년 아들 집성(集成)이 정려문을 세웠다.

참고문헌 : 해동삼강실록(海東三綱實錄)

## 효자 임명즙(林命楫)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송담리

주인공 임명즙(林命楫)의 자는 백섭(伯涉)이요. 본관은 부안(扶安)으로 임종유(林宗儒)의 장남으로 연기군 남면 송담리(松潭里)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아버지가 병고에 신음하자 아버지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4년이란 오랜 세월을 아버님 병환을 간호해 드렸다. 명즙의 아버지는 58세를 끝으로 1783년(

정조7년) 11월 14일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장사를 지내려 장지까지 가는데 상여가 남면 진의리에 있는 서근소(西斤沼) 나루터를 건너야 했고 이어서 금강(錦江)을 건너야만 했다.

그러나 계절이 추운 겨울이라 금강은 퐁퐁 얼어서 도시 건너갈 방법이 없었다. 임명즙은 강가에 나가 구천(九天)을 우러러 빙판이 풀리기를 두손모아 빌었다.

소년이 절실한 소원이 헛되지 않았던지 밤새에 금강은 마치 봄눈이 녹듯이 녹아 상여는 무사히 금강을 건너게 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한편 그의 어머니 이씨(李氏)는 세종의 맏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의 10대 손으로 아버지 보다 20년을 더 살았는데 풍단(風丹)이란 병으로 고생을 했다. 이 풍단이란 병은 열이 많은데다 환부의 피부가 붉게 붓고 동통(疼痛)을 일으키는 일종의 전염병이다.

그는 소리개의 깃이 특효라는 말에 소리개의 깃을 얻으려고 신명께 기도를 올렸다.+

“천지 신명은 어찌하여 미물(微物)의 깃을 얻기에 힘들게 하나니까 부디 굽어 살피시어 깃을 얻어 어머니의 병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기도하길 얼마되지 않아서 공중을 나르던 소리개가 깃을 마당에 떨어뜨렸다. 그 깃으로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1803년(순조 3년)에 세상을 하직했고 5년 후인 1808년(순조8년)에 숨을 거두었으니 그의 나이 64세였다.

임명즙의 지극한 효행은 널리 알려지고 유럽에서는 그의 효행을

조정애 알리니 조정에서는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를 겸한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의 벼슬을 내리고 정문을 세워 못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효행을 본 받게 하였다.

금강은 유유히 흐르고 계룡산의 정기가 굽어보이는 야산과 황금빛 평야로 이루어진 연기군 일대는 예부터 효맥(孝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니 학계의 태두 이규태(李圭泰)는 그의 저서“한국의 인맥”에서 「계룡산은 경천사상(敬天思想)이 명맥을 잇고 있는 유일한 곳!

효도는 금수오읍(錦水五邑)을 뺀 유맥(儒脈)의 필연지이고 공주와 연기에는 정려(旌閭)를 받은 효자 열녀가 전국적으로 단연 수위를 자랑하는 백여명이 되는 고을이다」 라고 적었다.

참고문헌 : 林孝子狀錄, 燕岐郡誌, 扶安林氏世譜  
韓國의 人脈 2卷

### 3효자 이정환(李廷煥)과 두 손자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송원리 만자동(滿子洞)

효자 이정환(李廷煥)의 본은 전주요, 자는 휘원(輝遠)으로 1604년(선조37) 고향인 남면 송원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충효로 이름이 높았고, 검소 절약하는 성품으로 주의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왔다.

그는 1636년(인조14년) 병자호란이 있을 후에는 일체 외출을 금하고 비통해 하면서 비가(悲歌) 10수를 지어 자신의 의(義)

를 충분히 나타냈다고 한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 6년간을 초막에서 살면서 묘소를 지켰고, 더구나 죽으로 끼니를 잇는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1664년(현종5) 특별히 백미를 보내왔고 숙종때 정려 건립을 명하였으나 건립치 못하였다.

한편 그의 손자(李景高)의 자는 상우(相虞)요 무오사화(戊午史禍)때 화를 입은 한제(寒齊) 이목(李穆)의 8대손이다.

그는 효행과 학문과 덕이 높은 조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의 아우 경익 또한 비상한 인재로 자는 공거(公舉)라 했는데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았는지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형의 말은 동생이 동생의 말은 형이 받아들이며 서로 도왔고 동생은 형을 섬기기를 부모처럼 받아들였으니 보는 이들의 칭송은 한결 같아 실로 감탄에 마지않았다.

경설이 18세 되는 해에 뜻밖에도 어머니를 잃게 되었다. 예의를 다 갖추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형제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머니를 잃게 한것은 보다 큰 죄악이니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시묘(侍墓)를 해야 할 것이다.”하고 형제는 어머니의 묘소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조석으로 음식(上食)을 드리니 마치 살아계신분을 모시듯 하였다.

이렇듯 그들 형제가 3년 상을 여막에서 지내니 세상 사람들이 쌍효자라고 이름 하였다.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를 그들은 홀로 계신 아버지에게 뜨거운

효성을 드렸으니 집안이 어려운 처지였으나 아버지에게는 쌀밥을 올렸고 고기 반찬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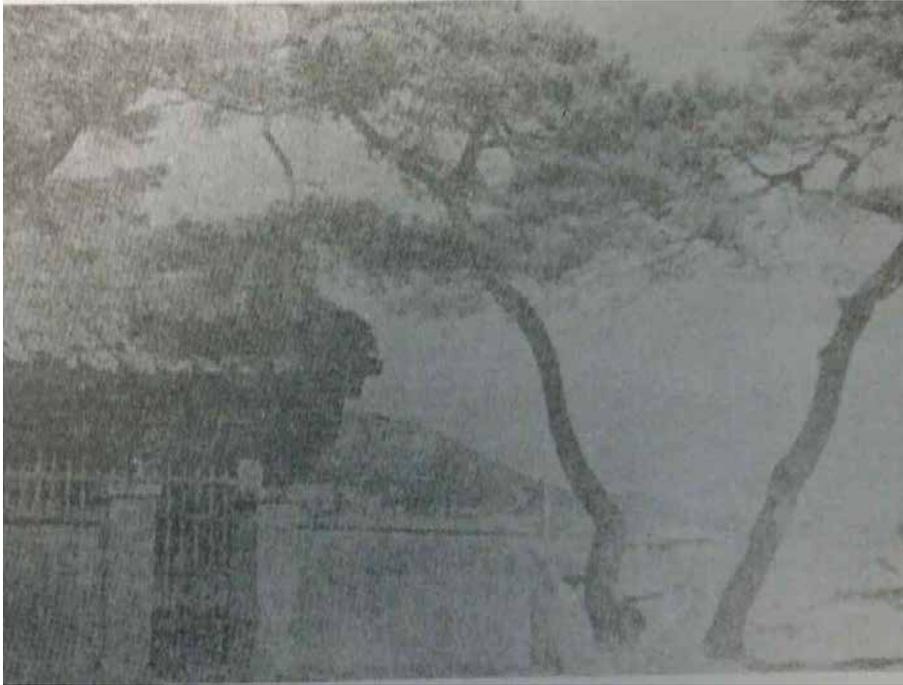
아침 저녁으로 문안 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고 추운 겨울이면 아버지 방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효성에 주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 형제는 1708년(숙종34) 같은 해에 세상을 뜨니 경설은 58세요 경익은 53세였다.

현재의 정문은 1723년(경종 3년)에 그의 조부 이경환과 그들 형제 모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증직되어 같은해 3월에 3효자의 정려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 참고문헌 : 大韓忠義孝烈錄, 韓國人名大辭典

## 호자 임수준(林秀俊)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월산리

이 정려의 주인공 임수준(林秀俊)의 본은 부안(扶安)으로 1690년(숙종16) 고향인 남면 월산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타고난 성품 그대로 온화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간 상복을 입고 죽으로 연명하였고 머리도 깎지 않았다.

그는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 당시 가뭄이 극심하여 난민

이 많이 발생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쌀 100가마를 나누어주었다.

한편 그는 학문에도 뛰어나 벼슬에 올랐었고 그 후 고향에 내려와 후배 양성에 전력하니 유생(儒生)들이 그의 효행과 인품을 기리기 위하여 1904년(고종41)에 정문을 세웠다.

\*참고문헌 : 旌閭記

## 형제효자 임자의(林自義)와

## 임태선(林太先)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송원리

임자의 임태선 형제는 본이 부안(扶安)으로 임난수(林蘭秀)의 후손이다. 그들의 가정은 가난 하였으나 형제간의 우애는 두터웠고 부모에 대한 효도 또한 남달리 훌륭했다.

그들은 부모를 한꺼번에 잃게 되자 장례식을 잘 모신 후 부모의 무덤 아래에 풀집을 지어 3년상을 지키니 언제부턴가 범이 나타나 그들을 보호하다 날이 새면 돌아가곤 했다.

한데 그러한 범이 그 후에는 나타나지 않아 이상히 여기던 중 꿈속에서 그 범이 어느 함정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 형제는 꿈속에서 본 그대로 그 장소에 찾아가 보니 과연 범이 함정에 빠져 있어 범을 구해주자 범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지 형제와 묘소에서 같이 지냈다 한다. 이러한 형제의 정성어린 효에 조정(선조:宣祖)에서는 통정대부비서(通政大夫秘書)를 증직하고 정려문을 세우게 하였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旌閭記

쌍 열녀 창녕성씨(昌寧成氏)

결성장씨(結成張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방축리

성씨와 장씨 두 여인은 동서(同厓)간으로 한집에서 살았는데 그녀들의 남편이 이상하게도 현꺼번에 죽어간 비극을 당했다.

성씨의 남편은 진오복(형)이고 장씨의 남편은 진오륜(동생)이었는데 그들 형제처럼 동서인 그녀들도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으니 유럽에서는 열려로 추앙하여 열려문(旌閨門)을 세웠다.

\* 참고문헌 : 旌閨記, 族譜

## 효자 강 협(康 協)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발산리

강협(康協)의 자(字)는 자경(子慶)이요 본관은 신천(信川)이니 1674년(현종15년) 강후돈(康厚敦)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난 강협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었고 마음씨가 어질고 착했다.

어린나이에 매일같이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 드렸고 아침이면 아침

대로 잘 주무셨느냐는 문안을 드리는 그의 비상한 효성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였다.

불과 13세가 되는 9월에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신 아버님인들 자넨 두고 어찌 눈을 감겠는가” 이웃 사람들은 소년을 한결같이 위로하여 가슴 아파했다.

가신 아버지는 화사동(花寺洞) 골짜기에 장례를 치루었으며 13세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의 묘소를 받들기 위하여 묘소 옆에 조그만 여막을 짓고 3년동안 그곳에 기거하면서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

그동안 그는 목욕은 커녕 옷도 갈아 입지 않았고 굶주림에 시달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3년간의 시묘를 끝낸 후, 만년에는 그의 일가 친척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충과 효를 가르쳤으며, 1750년(영조 26년) 3월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77세였다.

그후 150년이란 세월이 흘러 장예경(掌禮卿) 조정희(趙定熙)와 진사장철상(進士張喆相)등이 발론을 하여 정문 세울 곳을 물색하다 그가 태어난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에 새의 머리처럼 날을 듯하고 붉은 다리처럼 빛이나는 오두적각(烏頭赤脚)의 현 위치를 잡아 정문을 세우게 되었으니 때는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된 1905년(광무 9년) 11월이었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族譜

## 열부 김해김씨(金海金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남면 반곡리

열행비의 주인공은 김해김씨로 1917년경 열 여섯 살의 어린 나이에 금남면 반곡리 거주 여양 진씨(驪陽陳氏) 가문으로 출가하여 시부모님과 여러가족을 거느리고 빨래며 조석바라지며 빈궁한 가정을 꾸려 나갔다.

그러는 동안 세월이 가니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당시 어른들은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면 대를 잇게 되었다며 하나의 희망을 갖고 밤

이면 호롱불에 둘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워가며 그날그날의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침 이슬 저녁 노을에 흠냄새 보리 내음에 피로도 잊고 그날의 바쁜 손을 놀려가며 어떻게든지 가난을 벗어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일을 아니하면 죽는 줄만 알았던 두 내외에겐 그날의 피로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 진회현(陳會顯)씨가 가까운 부강장에 술을 사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한 저세상 사람이되어 횡사를 하게 되니 열 여덟살의 청상과부가 되었다.

이마을에 사는 진씨 문중의 진하영씨와 같이 있는 김동익씨의 말을 따르면 진회현씨가 장을 보고 막 집에 돌아올 무렵 독립만세의 함성이 퍼져나와 평소 나라를 잃은 슬픔과 일제의 만행에 격분했던 진회현씨도 군중들 틈에 끼어 함께 만세를 외치고 다니다가 일본경찰과 헌병의 총 칼질에 쫓기어 진회현씨도 함께 도망하다가 스스로 몸을 강물에 던졌다고 한다.

강물에 던져 세상을 떠난 시체라도 찾으려고 애썼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나무로 신주를 깎아 장례를 치루고 난 김해김씨는 그날부터 고행은 더욱 심해졌다. 농토가 없는 가세에 남편마저 잃은 그는 시부모를 모시고 가장의 노릇까지 했다.

그러나 시부모마저 세상을 떠나시자 유복자를 데리고 이집 저집 이일 저일을 찾아 하루하루 살아갔다. 김매기 바느질 짐나르기등 배를 움켜쥐고 품삯으로 밭 곡식을 모으고 모아서 몇평안되는 땅이지만 농토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수십년 후에 연약한 여자의 힘으

로 마련한 농토에 곡식을 심어 가꾸어 살림이 늘게 되었다.

그당시 여자의 힘으로 가운을 일으켰다 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대단하였다. 김해김씨의 열행이 후세에 전해지자 우리 어머니의 본보기라 일컫고 동민들의 정성을 한데 모아 동구 밖에 조출한 열행비를 건립하고 해마다 그분의 훌륭했던 행적을 추모해 왔다. 연약한 부인의 마음먹기에 따라 영원한 한 가문이 일어나고 쓰러져감을 우리는 새삼 새롭게 해준다.

\* 참고문헌 : 旌閭記

효자 조백달(趙百達)과

열부 경주김씨(慶州金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효자 조백달은 본이 양주(楊州)로 1764년(영조40) 10월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에서 출생했으며 어려서부터 남달리 천성이 온화하고 영리하여 스승의 칭송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 또한 지극했다.

20세 되던 해에 그의 학문이 뛰어 남은 조정에서 알고 왕명 (王命) 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을 하나하였으나, 관직에 있으면

부모님을 모시기 어렵다하여 개인의 영화보다 효행길을 택했으니 53세로 1816년(순조16)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효행은 그침이 없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그의 효행과 높은 인품을 알고 1832년(순조 32)에 조봉 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教官)을 증직하고 원성리(대뿌리)에 정려문을 세우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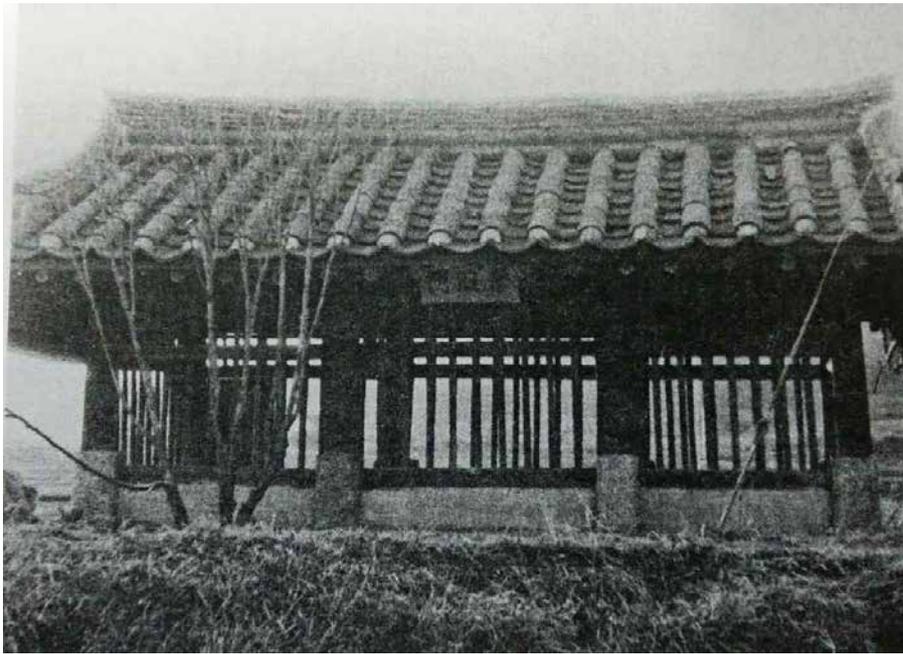
한편 그의 아내 경주김씨(慶州金氏)는 1764년(영조40) 보은에서 출생하여 13세의 어린 나이로 출가하였다.

명문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운순하고 예의 범절이 훌륭했고 나아가서는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그녀는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그들에 대한 교육에 남달리 엄격했으며, 남편이 병으로 죽자 3년상을 지내고 혼백을 내보내면서 밤나무에 목을 매어 남편의 뒤를 따르니, 각지방 유림들이 조정에 알려 1833년(순조 32)에 남편과 더불어 정문을 세우도록 했다.

\* 참고문헌 : 旌閭記, 族譜

## 조수빈(趙秀彬) 명빈(命彬) 형제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조수빈의 자는 사종(士宗)이요, 호는 애근당(愛勤堂)으로 1745년(영조 21) 9월 5일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에서 출생하였다.

원래 집안이 가난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죽으로 끼니를 이어나갔으며 그의 나이 13세되던 해에 그는 동생을 불러 놓고 “형제가 한마음이 되어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배우고 일하자”고 서로 맹세를 했다.

그러한 그들의 맹세는 헛되지 않아 점차 생활의 여유를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나이는 노쇠에 이르렀고 드디어는 병석에 눕게 되었다. 이에 그들 형제는 밤낮으로 목욕을 하고 몸을 단정히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도 손가락 피를 빼어 드리기도 해서 소성케 하였으나 얼마후에는 소양증으로 고생하자 그 병에는 신초근(莘草根)이 특효라는 말을 듣고 찾아헤메였으나 때는 엄동이라 구할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 형제는 꾸준한 지성으로 높은 산을 샅샅이 뒤지는데 마침 용케도 눈이 녹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파릇파릇 싹이 솟아났는데 그것이 곧 신초근이었다.

그들의 눈물겨운 지성에 하늘도 무심치 않아 내리신 영약인 것이다.

얼마 안가서 어머니는 다시 병고에 시달리게 되어 그들 형제는 자신들의 효성이 미진한 탓이라고 자탄하면서 온갖 지성을 다하였으나, 89세의 노령으로 세상을 떠나니 조수빈의 나이 60이었다.

그러한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묘소에 움막을 지어 3년을 모시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어 어디선가 범이 나타났고 그 범은 그들을 헤치기는커녕 그들과 3년을 같이 지냈다니 그들의 효성은 하늘에서 내린 효자라고 우러러 보였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고 여비가 없어서 과거길을 못가는 사람들에게겐 여비까지 도와 주었다는데 1824년(순조24년)에 80이 란 장수로 타계했으니 1842년(헌종8)에 효자의 교시를 받았고 동생 명빈(命彬)은 1749년(영조 25) 10월 28일에 출생 자는 성천(性天)이오 호는 국포(菊圃)이다.

명빈이 역시 천성이 온화하고 덕이 있었고 머리는 총명했다.

명빈은 미호삼산재김선생(美湖三山齋金先生)에게 수학하여 경서와 자서를 배웠고 「심선성악」(心性善惡)의 책자를 저술하여 유림에게 강의 하기도 했다.

1762년 가을에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형 수빈이와 더불어 목욕하고 몸을 단정히 하여 하늘에 빌었고 손가락 피를 뽑아 먹이기도 했다.

그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형과 더불어 묘소에서 3년을 지키며 슬피 울었다 한다.

그는 어머니의 탈상 후에도 춘하추동을 가리지 않고 매일을 한결같이 성묘를 했다.

참고문헌 : 教旨, 旌閭記

## 효자 김충렬,신렬 형제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고등리

효자 김충렬과 신렬 형제는 승로(承露)의 9세손(九世孫)으로 부안현감(扶安縣監)을 지낸 김해수(金海壽)의 손자이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효행이 극진하여 아버이를 잘 섬기고 윗 어른들을 정중한 예로 대하는 것이 여간 어른스럽지가 않았다. 그래서 마을 노인들이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 그런 예법(禮法)을 배웠기에 그토록 훌륭한가?”하고 물었을 때

“부모님을 잘 받들고 공경하는 일을 어찌 배워서 알겠나이까” 하는 대답이었다.

그들의 아버지 나이 30이란 젊음에 세상을 등지니 총렬이 나이 겨우 11살에 동생 신렬은 9살 이었다.

집안의 큰 거목이 썩어져 그는 가난과 늙으신 할머니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어느날 아버지가 잉어를 먹고 싶다고 했다. 마침 눈보라 치는 겨울이었다.

동생 신렬이가 뽕뽕 얼어 붙은 실천강에서 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아 “잉어”가 나와 주기를 신명께 기도 했다.

그토록 눈물겹게 기도를 한 보람이 있어서 “잉어”를 잡아다 소원을 풀어 드렸다 한다.

얼마 후에는 조모님이 돌아가시니 승중손(承宗孫)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3년 동안을 허리띠를 한번 풀지 않고 예의와 지성을 다했다니 실로 하늘이 감동할 일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60년을 맞는 제삿날 그는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복을 입고 여막(廬幕)에서 기거를 하니 세인들의 크게 놀랐다.

이러한 그의 행적을 소상하게 나라에 올리니 나라에서는 정려를 짓게하고 비를 세워 두 형제의 효행을 길이 빛나게 하였고 숙종대 왕은 온양(溫陽)에 행차 하셨다가 그들 형제의 효행을 가상히 여겨 음식을 내리고 고귀한 뜻을 받아들여 표창하였다.

\* 참고문헌 : 연기군지, 旌閭記

## 효자 김사준(金師俊)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양곡리

김사준은 안동 사람으로 자는 명숙(明叔) 호는 은암처사(恩庵處士)로 1439년 (세종21)에 형조참의(刑曹參議) 김구년 (金龜年)의 5형제 중 2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이씨(李氏)는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손녀요, 태종에게는 증손녀가 된다.

김사준의 아버지는 조종에 출사(出仕)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1455년(단종3년)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은 12세인 단종을 상왕(上王)으로 올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는 정변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피 비린내 나는 사육신(死六臣)의 처형과 집현전(集賢殿)의 폐지가 단행 되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는 이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불의(不義)를 개탄한 나머지 벼슬을 미련 없이 버리고 연기군 전동면 양곡리(陽谷里)로 낙향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김사준은 어려서부터 어질고 착하고 영리했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항상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였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뜻밖에도 아버지가 단병(痘病)이라는 고치기 힘든 모진 부스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연근(蓮根)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 엄동설한이라 연근이 있을 리가 없었다. 서준은 어쩔 수 없이 매일을 연못 빙판에 들어가 연근이 나오기를 몇일을 두고 기도를 드렸다.

천지 신명이 도와서 연근이 나왔고 그 연근을 먹은 아버지의 병은 씻은 듯이 완쾌되었다.

그후 그의 아버지는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 하였으니 생전에 못다한 효도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효자 김사준은 아버지 산소옆에 조그마한 움막을 만들어 자그만치 3년간이나 산소에서 영령과 기거를 같이 하면서 슬피 울었으니 산신(山神)도 이에 감동하여 밤이면 호랑이로 변신하여서 그와

동거를 하며 겨울이면 그의 추운 몸을 녹여 주었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갖가지 미물의 침범을 막아주니 모두가 그의 효행에서 비롯함이라 했다.

이러한 그의 지성에 감동한 예종(睿宗·고려 16대왕)이 그의 지극한 효성을 듣고 친히 칙사(勅使)를 보내어 위로하고 선산(先山)을 능참봉(陵參奉)으로 이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글월을 올려 이를 사양하고 오로지 아버지가 묻혀있는 산소 아래 움집에서 기거하면서 후세를 위하여 글공부에 부단한 진력을 쏟았으니 유림들은 입을 모아 그의 지극한 효성과 덕학(德學)에 감탄해 마지 않았다.

사준의 작은 아버지 사수(師秀)의 아들 오(鏞)는 1480년(성종11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금의 환향을 했다.

환향을 한 조카가 그를 뵈고자 문을 두드렸으나 사준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을 뿐더러 골육 상쟁하는 조정에서 벼슬한 것을 되려 꾸짖었으니 그의 대쪽 같은 절의(節義)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다. 김사준은 1520년(중종15년)에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니 고을 사람들이 애석해 하면서 우리의 스승이 이제 아주 떠나셨다면 서 통곡했고 장례의 행렬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어 길을 메웠다.

명종조(明宗朝)에 이르러 그의 지극한 효성은 영세 불망이라 치하하고 정려를 명하였다. 효자 김익정과 깊은 정문에 현판이 있다.

참고문헌 : 族譜

## 영당리(靈堂里) 정려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영당리

이정려에는 두사람은 효자와 효부(孝婦), 열녀(烈女) 모두 네 분의 현판을 같이 모시고 있다.

먼저 효부는 과평윤씨(坡坪尹氏)로 조봉대부(朝奉大夫) 강원룡(姜元龍)의 부인으로 1893년 (고종 30년) 정려를 명받았으며 효자 정대권(鄭大權)은 중추원 의관(議官)을 지냈으며 가선대부 내부 협변(協辯)을 증직 받았고 1904년(고종 41년) 성월에

정문을 명받았으며, 효자 정원룡(鄭元龍)은 같은해에 정문을 명받고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教官)을 증직 받았다.

열녀(烈女) 유인이씨(孺人李氏)는 정헌세(鄭憲世)의 부인으로 같은해(1904년) 4월에 정려를 명받았다.

현재의 정려는 1979년 군비(郡費)의 문중의 부담으로 보수하였다.

\* 참고문헌 : 懸板

## 열부 기계유씨(杞溪俞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석곡리

지금부터 약 250여년전 전동면 석곡리에 거창 신씨 집안이 모여 살았다.

이중에 이초(爾初)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가 바로 열려문의주 인공 기계 유씨의 남편이다.

유씨는 본디 천품이 어질고 총명하였으며, 인정이 많아 동네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다. 또한 시부모를 잘 모시고 남편을 지성으로 섬

겼으니 모두들 그를 현모양처라 했다.

슬하에 10남매를 두고 남편이 죽자 자식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유씨는 말한다.

“내가 평소에 너희 아버지를 정성껏 받들지 못하여 돌아가셨나 보다. 이제 아내인 나 혼자 살아 복을 누린다는 것은 부덕(婦德)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 지어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너희 아버님 뒤를 따르리라”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에도 형제간에 더욱 아끼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7일간을 식음을 전폐하다.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러한 유씨의 부덕함을 고을마다 퍼지면서 나라에서 정려문을 세우게 하였으니 1729년(영조5년) 일어났다.

\* 참고문헌 : 燕岐誌, 燕岐郡誌

## 효열부 공인라씨(恭人羅氏)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보덕리

김운경(金雲敬)의 부인 공인라씨(恭人羅氏)의 정려로 부인의 행장(行狀)은 기록이 없으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얼마후 부인도 따라 죽었다고 전한다.

현재의 정문은 1676년(숙종2년)에 건립하였다.

\* 참고문헌 : 燕岐郡誌

## 호자 김익정(金益精)



문화재지정 : 비지정 (사 적)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양곡리

김익정의 본은 안동(安東)으로 1396년(태조5)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삼사(三司)를 역임하시고, 사헌부 대사헌(司憲府)에 재직중 노친을 모시기위하여 관직을 물러났으며, 부모가 돌아가시자 6년간을 시묘(侍墓)하였다.

다시 태종의 부르심을 받고 정계에 진출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훈몽강학(訓蒙講學)을

독려하여 민족중흥을 진작하였다.

본래 천성이 겸손하였고 학문이 탁월하며 효성이 지극한지라 세상 사람들이 충효의 집안이라 칭송하였으며, 조신(朝臣)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세조때 정문을 명(命)하였으며, 충효의 집안에서 충신 난다고 공의 손자인 수령(壽寧)은 대제학(大提學)을 지냈고 성종때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복창군(福昌君)까지 봉하여 문정공(文情公)의 시호를 받았으며, 호자 김사준과 같은 정문에 현판이 있다.

\* 참고문헌 : 名臣錄, 孝子錄



本圖書는 韓國文化藝術振興院으로부터 出版費 一部와  
鳥致院信用協同組合의 支援을 받아 發刊되었습니다.

## 鄉 土 史 料

---

1987年 12月 1日 印刷

1987年 12月 10日 發行

發行處：鳥 致 院 文 化 院

發行人：李 基 鳳

印刷處：合 同 印 刷 社

조치원읍 신흥 1동 94

☎ 2-6880

---

非賣品